■ 민족문화연구 제93호(2021.11.3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49-204.
http://doi.org/10.17948/kcs.2021..93.149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조선시대 수용 양상(Ⅰ)
—전·중기를 중심으로—

임준철(林濬哲)*

목 차

1. 머리말
2. 예비적 고찰
3. 『分類補注李太白詩』본 이백 시 수용 사례 管窺
4. 『風騷軌範』에서의 『分類補注李太白詩』 수용 양상
5. 조선 중기 비평에서의 『分類補注李太白詩』 수용 양상
6. 남는 문제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에서의 이백 시 수용 연구 일환으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백 시집 판본이자 주석서인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조선 전·중기 수용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이백은 우리 한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의 한 사람이지만, 개별 문인들이 어떤 책을 통해 수용하였던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 글에서는 조선 초기 이래 이백 시 주석서 및 시집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여 다음 네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판본 간 수록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 중기까지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내용이 주로 수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점은 이 책이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조선시대 문인들의 이백 이해에 주요한 준거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둘째, 『分類補注李太白詩』와 다른 이본 계열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조선 전기 金安老가 『希樂堂稿』에 自註할 때 활용한 이백 시는 현재 전하는 異本들과도 차이가 있다.

셋째, 『風騷軌範』과 같은 이백 시 선별 작업에 『분류보주이태백시』가 기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풍소궤범』에선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분류방식을 제한적으로 수용하였으며 대체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백 시를 재분류하였다.

넷째, 조선 중기 『지봉유설』과 『오산설림』의 이백 시 비평 내용을 통해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주석이 이 시기까지 이백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구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들이 本注라고 말한 것은 모두 楊齊賢이나 蕭士贇의 주석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수광과 차천로는 주석의 문제점들도 함께 지적하였으며 나름의 주석을 추가하기도 했다. 『지봉유설』의 경우 명나라 唐汝詢의 『唐詩解』 같은 새로운 이백 시 주석이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주제어: 이백, 조선 전기, 조선 중기, 수용, 『分類補注李太白詩』, 『唐詩解』.

1. 머리말

이 글은 한국에서의 이백 시 수용 연구 일환으로 조선 전・중기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수용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백은 우리 한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 중 한 사람이다. 한국에서의 이백 시 수용 양상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 주제, 意象, 注釋과 언해 등의 측면에서 연구된 바 있다.[1] 하지만, 개별 문인(시인과 비평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백 시를 이해 혹은 활용하였던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이백 시에 대한 한국 문인들의 이해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변증과 비평이 어떤 특성을 갖는가에 대한 소명 역시 충분하지 못하였

1) 이창룡, 『韓中詩의 比較文學的硏究—李白・杜甫에 대한 受容樣相—』, 일지사, 1984; 이병주, 『두보와 이백』, 아르케, 1999; 류성준, 『韓國漢詩와 唐詩의 比較』, 푸른사상사, 2002, 337-371면; 허경진, 「한국에서 이백 시가 언해된 배경에 대하여」, 『동방학지』 128,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311-337면; 한계호, 「필사본'李白七言'의 注釋과 諺解 양상」,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39-73면; 졸고, 「車天輅 詩에서의 李白 詩 '鼇' 意象의 受容과 變奏」, 『비교문학』 38, 한국비교문학회, 2006, 5-36면 등.

다. 이 글에서는 기존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선초 이래 이백 시집 및 주석서로 큰 영향을 미쳤던 『分類補注李太白詩』의 수용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에 접근해 보려고 한다.

2. 예비적 고찰

『分類補注李太白詩』(25권)는 宋 楊齊賢이 集註하고 元 蕭士贇이 補註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백 시 문헌 중 하나이다. 원·명대 가장 유행했던 이백시집 注解本이기도 하다. 명대에도 여러 차례 翻刻되었으며, 조선은 물론 일본에서도 번각본이 나와서 그 영향력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제현이 集注한 것을 소사윤이 刪補한 까닭에 楊蕭本, 혹은 蕭本이라고 약칭한다. 기록에 따르면 『分類補注李太白詩』의 가장 이른 刊本은 元 至元 辛卯(1291)년 간본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2)]

양제현(1181-1269)은 남송시대 인물인데 역사서에도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다만 『宋元學案補遺別附』 권2와 『四庫全書叢目』 권14 등에 字는 子見, 永州 寧遠人(지금의 湖南 寧遠), 慶元 5년(1199)에 進士, 관직은 通直郎에 이르렀으며, 穎悟博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明 高儒의 『百川書志』 권14 集志 3에는 양제현이 『集注李白詩』 25권을 남겼는데 이미 망실된 것이 애석하며, 소사윤의 『分類補注李太白詩』에 일부만이 보존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사윤은 字가 粹可, 호는 粹齋·冰厓後人(冰崖後人), 韓州 寧都(지금의 江西 寧都) 사람으로, 원나라가 들어선 뒤 隱居하고 벼슬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蕭立等은 남송 말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시인으로 작품이 "南渡以後高品"이란 칭송을 받았다고 한다. 『江西通志』 권51에는 그의 저술로 『詩評』 20여 편, 『冰崖集』, 『李白詩補注』가 전한다고 했지만, 앞의 두 책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千頃堂書目』 권29)[3)]

---

2) 邵懿辰, 『增訂四庫簡明目錄標注』, 邵章 『續錄』, "吳門汪氏藏元至元辛卯刊本, 半葉十二行, 行大字二十, 小字二十六." 여기에서 吳門 汪氏는 清 汪士鍾을 가리키는데, 이 책은 현재 流傳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詹鍈 主編, 南京: 白花文藝出版社, 1996, 4563면에서 재인용.

소사윤은 책의 「序例」에서 양제현 주석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신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덜어내고 좋은 부분만 선택해서 남겼으며, 주석이 미진한 부분은 자신이 아는 바를 뒤에 붙여서 하나의 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위작이 의심되는 작품은 권말에 두어서 具眼者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또한 이백의 부에 대해서는 양제현이 주석을 달지 않았지만, 자신은 아울러 주석을 달았다고 했다.[4]

조선시대에 『分類補注李太白詩』는 세종 18(1436)년 간행 반포된 이래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간행되었다고 한다. 1436(세종 18)년 初鑄甲寅字로 간행되었으며 중종 무렵 다시 갑인자로 重刊되었으며(1515년 이후 추정), 선조대에 초주갑인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이 나왔으며(1588 萬曆 16 尹斗壽가 전라도 나주에서 간행) 임진왜란 이후엔 訓鍊都監字로(李爾瞻의 발문 1616 만력 丙辰年 간행), 그 이후 다시 목판으로, 정조대 이후 整理字體 철활자로 간행되었다고 한다. 앞의 다섯 차례는 모두 같은 판본이지만, 마지막 활자본은 책 제목만 같을 뿐 明의 許自昌本에서 주석은 빼고 시의 본문만을 실어 간행했다고 한다.[5] 許自昌本은 두보의 시집과 함께 간행된 것인데 원래의 『분류보주이태

3) 양제현과 소사윤에 대해서는 張佩, 『楊齊賢・蕭士贇《分類補注李太白詩》版本系統研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15, 17-43면;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앞의 책, 4566-4566면 등 참조.

4) "唐詩大家數李杜爲稱首. **古今註杜詩者號千家, 註李詩者曾不一二見, 非詩家一欠事歟**? 僕自弱冠, 知誦太白詩, 時習舉子業, 雖好之, 未暇究也, 厥後乃得專意於此, 間趨庭以求聞所未聞, 或從師以蘄觧所未觧, 冥思遐想, 章究其意之所寓, 旁搜遠引, 句考其字之所原. 若夫義之顯者, 槩不贅演, **或疑其贋作, 則移置卷末, 以俟巨眼者自擇焉**. 此其例也. 一日得巴陵李粹甫家藏左綿所刋舂陵楊君齊賢子見註本讀之, 惜其博而不能約, 至取唐廣德以後事及宋儒記録詩詞爲祖, 甚而併杜註内僞作蘇東坡箋事已經益守郭知達刪去者, 亦引用焉. **因取其本類此者爲之節文, 擇其善者存之. 註所未盡者, 以予所知附其後, 混爲一註. 全集有賦八篇, 子見本無註, 此則併註之, 標其目曰「分類補註李太白集」**. 吁, 晦菴朱子曰, 太白詩從容于法度之中, 盖聖于詩者, 則其意之所寓, 字之所源, 又豈予寡陋之見所能知, 乃欲以意逆志于數百載之上, 多見其不自量矣. 註成不忍棄置, 又從而刻之棗者, 所望于四方之賢師友是正之, 發明之, 增而益之, 俾箋註者由是而十百千焉, 與杜註等, 顧不美歟! 其毋笑以註蟲魚, 幸甚! 至元辛夘中秋日章貢金精山北冰厓後人粹齋蕭士贇粹可." 이에 따라 『분류보주이태백시』 수록 賦에는 소사윤의 주석만 달려 있다. 또한 특별한 언급이 없지만 「菩薩蠻」・「憶秦娥」 두 편의 詞에도 소사윤의 주석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 양제현이 이 작품들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楊齊賢 集註, 蕭士贇 補註, 『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7, 1-6면;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앞의 책, 4564-4565면.

5) 『世宗實錄』 권71, 18년(正統元年 丙辰: 1436년) 正月 乙未조(1월 29일), "주자소에서 인쇄한 李白의 詩集을 종친과 文臣 5품 이상의 관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李仁榮, 『清芬室書目』, 張伯偉 編, 『朝鮮時代書目叢刊』 8, 北京: 中華書局, 2004, 4777-4778면; 황선주, 「한국본 『李太白文集』의 판본 문

백시』와 분류 순서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6]

『분류보주이태백시』는 조선시대 이백 시 수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두보와 달리 이백 시의 수용 문헌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세종대를 기준으로 볼 때 두보 시에 대해서는 여러 종의 주석서가 통용되었던 반면 이백 시의 경우는 『分類補注李太白詩』가 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7] 이는 중국의 상황과도 유사하다. 일찍이 소사윤이 『분류보주이태백시』「序例」에서 지적한 것처럼 송대 이래 두보 문집에 대해선 千家註가 있지만, 이백 문집에 대한 주석은 드물었다. 송원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분류보주이태백시』만이 전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이백 시의 문학적 수용이란 측면에서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검토하는 만큼 판본 문제에 대해서는 상론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향후 세종대 초주갑인자본의 底本이 무엇인지에 대한 考究가 필요하다는 점을 특기하고자 한다. 중국학자 詹鍈에 따르면, 세종조 갑인자본은 원대의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그대로 복간한 것이라고 한다.[8] 그런데 일본학자 芳村弘道는 元

제」, 『韓國의 中國文獻學을 위하여』, 지샘, 2015, 37-41면.

6) 『四庫全書總目提要』

7)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329면. "세종조에는 李白詩集의 경우 『分類補注李太白詩』가 주석서로서 통용되고 있었으나, 두시집의 경우는 1431년 밀양에서 복간된 『두공부초당시전』 말고도 중국의 주석서들이 여럿 있되, 어느 것이나 정통 주석서로 공인되지는 못하였다."; 황선주, 「한국본 『李太白文集』의 판본 문제」, 앞의 책, 37면. "조선조의 이백문집은 『分類補注李太白詩』로 집약된다."

8)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앞의 책, 4576-4578면. 詹鍈은 이 글에서 조선 간본들을 명나라의 서로 다른 覆刻本, 重刻本, 校刊本 중의 하나로 들고 있다. 그는 '朝鮮舊活字本《分類補注李太白詩》二十五卷'(每半葉9行 行17字 [齊賢曰]・'[士贇曰]' 방식으로陰刻), '朝鮮銅活字本'(初鑄甲寅字, 每半葉10行 行18字), '朝鮮木活字本'(每半葉9行 行17字 '[齊賢]・'[士贇]' 방식으로 陰刻)로 분류하고 있으나, 조선 간본들이 원판 계통임을 지적하고 있을 뿐 初鑄甲寅字本의 경우 母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내용상 명 正統 14(己巳, 1449)년의 번각본과 正德 15(庚辰, 1520)년에 간행된 安正堂本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황선주는 "세종조의 초주 갑인자본은 원대의 『분류보주이태백시』를 있는 그대로 복간하였다고 한다."라고 언급하며 詹鍈의 글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실제 글에서는 초주 갑인자본을 지목해서 말한 것이 아니다.** 황선주, 「韓國本『李太白文集』의 版本 問題」, 앞의 책, 37면. 詹鍈의 글에서 정작 주목해야할 내용은 다음 언급이다. 그는 일본 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된 초주갑인자본이 『韓國古印刷史』(한국도서관학 연구회 편, 한국도서관학 연구회, 1976)에 실린 書影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초주갑인자본은 본래 黑魚尾인데 서릉부 소장본은 花口魚尾이며 字體도 상대적으로 細瘦하다는 것이다.** 詹鍈이 조선 간본들을 설명한 내용들은 芳村弘道의

本『분류보주이태백시』를 검토하면서 조선본들을 '朝鮮銅活字'[9]라는 별개의 계열로 묶어서 분류하고 있어서 元本에서 연유한 것은 맞지만 그 계열은 분명하지 않다고 본 듯하다. 필자 역시 최근 영인된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와 조선 간본을 비교해 본 결과 다른 판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10]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본은 元 建安余氏勤有堂刻明修本이다.[11] 목록 말미의 木記/刊記에 따르면 이 책은 元 建安余氏勤有堂刻本의 명대 補刻本(明修本)인데, 보각된 부분은 대체로 거칠다고 한다.

조선 간본이 대체로 10행 20자 혹은 9행 17자(선조대 목판본, 훈련도감자본)인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양자가 다른 版式의 계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版次에도 차이가 있어서 양자는 이본임이 분명하다. 또한 元 至大 연간의 판본에는 총 세 곳의 墨丁[■]이 있는데, 조선 갑인자본에는 글자가 명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권9「贈崔侍郎」(권9에 실려 있는 두 수의 동제 작품 중 뒤에 실려 있는 작품) 등에 '二'라고 적혀 있다.[12] 또한 조선 간본을 중국 국가도서관 소장 元 建安余氏勤有堂刻本의 명대 補刻本(明修本)과 비교해 보면 이 책엔 略字가 많이 사용되어 조선 간본과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거칠게 보아 원대『분류보주이태백시』중 하나가 저본이 된 듯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芳村弘道,「關于元版系統的《分類補注李太白詩》」, 劉崇德 譯, 中國李白研究會 編,『中國李白研究』1992-1993年集, 合肥: 黃山書社, 1992・1993, 364면.[이 글은 芳村弘道,「元版系統の『分類補註李太白詩』について」(『學林』第14・15號, 京都: 中國藝文研究會, 1990, 102-125면.)을 중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芳村弘道는 이상을 근거로 궁내청 서릉부 소장본이 再鐫甲寅字本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 책은 마지막 책에『李太白文集』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圖書寮典籍解題』에서는 이 책을 "駿河御讓本"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그는 원본『분류보주이태백시』중 조선본들을 다시 '⑹朝鮮銅活字本', '⑺朝鮮木活字本', '⑺朝鮮整版本' 계열로 분류했다.**

9) 芳村弘道, 앞의 글, 364면. 논문 본문에서는 '⑹朝鮮銅**治**字'라고 표제를 달았으나 '治'는 '活'의 오기이고 뒤에 '本'자가 빠진 것으로 보인다.

10) 楊齊賢 集註, 蕭士贇 補註,『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1-6,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7.

11) 간략한 서지사항을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25권 6책. 高19.9cm, 寬13.2cmm, 每半葉12行, 行20字, 小字雙行26字, 黑口, 四周雙邊. 元 建安余氏勤有堂刻本은 元 至大 庚戌(1310)년 간행본이다. 建安 余氏는 송대 이래 書商으로 알려진 집안이다. 북송대부터 刻書 활동을 시작하여 남송 때 余仁仲의 萬卷堂이 가장 유명했고, 원대에 들어서는 余志安 勤有堂의 각서가 가장 많아서 영향도 가장 크다고 한다. 汪桂海,「序言」,『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 1-3면.

12) 일찍이 芳村弘道가 분석한 내용을 후에 詹鍈이 자신의 글에 수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 간본의 저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좀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이 책을 연구할 때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목판본에 대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해제가 잘못 수록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이 책은 완질로 전하는데, 선조대 번각 목판본이 맞다면 전하는 책 중 상태가 좋아서 저본의 특성을 살피기에 용이하다. 그런데 현재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해제는 선조대 번각본이 아니라 훈련도감자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한다.[13]

본격적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전제할 것은 우리가 세종대 간행 이전 특히 고려시대에 어떤 이백 시집과 주석본이 유통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학자 胡振龍에 따르면 남송초기에 첫 번째 이백시 주석본인 『注太白詩』가 나왔다고 한다. 金의 王繪[字는 質夫, 濟南人, 金 熙宗 天會 2년(1136) 進士]가 주석한 이 책은 淸 黃虞稷이 편찬한 『千頃堂書目』 권32 '文史類'에도 著錄되어 있는데 권수는 밝혀져 있지 않다. 楊齊賢이 진사시험에 登第한 때가 송 寧宗 慶元 5년(1199)이므로 그의 주석 작업은 왕회보다 나중임이 분명하다.[14]

그런데 고려시대 **崔惟淸(1093-1174)도 이백 시에 대한 주석서인 『李翰林集注』를 남긴 바 있다.** 이 책이 현재 전하지 않지만 최유청의 이백 시 주석 작업은 최소한 양제현보다 빠르고, 金 王繪의 『注太白詩』와도 비슷한 시기에

13)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목판본은 1588년 간행한 초주갑인자 번각본으로 알려져 있다. Chao Ying Fang, 『The Asami Library-A Descriptive Catalogu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노경희, 「미국 버클리대학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목판본 『분류보주이태백시』 해제」에서 재인용. 현재 해외한국학 자료센터의 이미지 파일과 노경희의 해제가 잘못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번각본이라고 해제한 내용의 이미지 파일은 실제 훈련도감자본으로 보인다. 해제가 없는 10행 행20자본이 갑인자의 번각본이다.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O.0000.0000-20090724.RICH_0824; http://kostma.korea.ac.kr/dir/list?uci=RIKS+CRMA+KSM-WO.1588.0000-20090714.AS_BC_421.

14) 胡振龍, 「讀李白集古注本札記」, 『文獻』 2007年 第3期, 北京: 國家圖書館, 2007, 24면; 張佩, 앞의 책, 3면 각주 1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유청은 1132년(인종 10) 禮部員外郎으로 陳奏使가 되어 송나라에 다녀왔다. 또 1142년에는 諫議大夫로서 금나라에 가서 冊命에 대한 감사를 올렸는데, 최유청의 말과 행동에 金人들이 탄복했다고 한다.[15]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최유청이 금나라 사행에서 王繪의 『注太白詩』에 관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최유청의 **『李翰林集注』는 書名만 보면 樂史가 편찬했다는 이백 문집이나 南宋 咸淳本으로 불리는 책에 대한 주석일 가능성도 있다. 樂史가 宋 咸平 원년(998) 무렵 편찬한 『李翰林集』 20권(같은 해 「李翰林別集序」 작성)이나 명대 간본이긴 하지만 남송 咸淳이 서문을 작성한 『李翰林集』(40 가지 분류 기준, 30권)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16] 무엇보다 왕명을 받들어 편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시대의 이백 애호 정도와 높은 이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비록 책의 성격을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최유청의 『이한림시주』는 동아시아 이백 시 주석사에서 앞부분에 놓일만한 선구적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에서의 이백 시 수용을 검토할 때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할 수 없다는 사실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류보주이태백시』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이전의 한국에서의 이백 시 수용 양상에 관해서는 논의의 공란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추후 관련 자료의 발굴을 기대해 본다.

3. 『分類補注李太白詩』본 이백 시 수용 사례 管窺

주지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과체시 규식을 설명할할 때 이백의 「襄陽歌」(권7 歌吟) 구절의 평측 특성을 들곤한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때 예로 든 "千金駿馬換小妾, 笑坐雕鞍歌落梅."라는 구절은 『분류보주이태백시』로

15) **이때 금나라 황제에게 올린 「回封冊表」, 「謝冊表」, 「上大金皇帝謝恩起居表」 등이 『동문선』 권34 表箋에 수록되어 있다**. 최유청에 대해서는 『고려사절요』 제10권, 仁宗恭孝大王二, 임술 20년(1142), 송 紹興 12년·금 皇統 2년조; 고려사절요 제12권 明宗光孝大王一, 갑오 4년(1174), 송 淳熙 원년·금 大定 14년조 中書侍郎平章事 崔惟淸의 졸기; 안정복, 『동사강목』 제8하, 임자년 인종 10년(송 고종 紹興 2, 금 태종 天會 10, 1132) 2월조 등 참조. 참고로 고려말의 명장 崔瑩이 최유청의 후손이다.

16) **『李翰林集』에 대해서는** 詹鍈, 앞의 글, 4538·4553-4563면 참조.

부터 연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분류보주이태백시』 외에는 대부분 '小'자를 '少'자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白孔六帖』(권17 妾10), 『文苑英華』(권201 樂府10), 『樂府詩集』(권85 雜歌謠辭) 등에선 모두 '少'자로 표기하고 있다. 『문원영화』에선 '笑'자도 '一作醉'라고 하고 교감 주석을 달아놓았다.[17]

물론 과거의 지식인들이 이백 시를 무슨 책으로 보았는가는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다만 이상과 같은 사례에 주목하여 몇 가지 특수 사례를 중심으로 『분류보주이태백시』본의 영향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1) 「胡無人」

『분류보주이태백시』 권3 樂府에 실려 있는 「胡無人」은 마지막 부분 내용의 적절성 문제로 역대로 논란이 되었던 작품이다. 이 시는 오랑캐 섬멸 의지를 담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오랑캐 땅에 사람 없어지고,
> 한나라의 도가 창성하리라.
> 폐하의 수명 영원할 것이니,
> 다만 "큰바람 일어 구름 날아오는데,
> 어찌하면 용사를 등용하여 사방을 지킬까?"를 노래할 뿐이네.
> 胡無人, 漢道昌,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守四方.

蘇轍은 일찍이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守四方**." 중 뒤의 두 구절이 이백이 帝王의 風度를 알지 못하고 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18]

---

17) 丁若鏞, 『牧民心書』 禮典 6조 제6조 課藝 「近世以來, 文體卑下, 句法澆悖, 篇法短促, 不可以不正也.」 "卞春亭初作科詩, 原倣〈襄陽歌〉聲律, '**千金駿馬喚少妾, 笑坐雕鞍歌落梅. 遙看漢水鴨頭綠, 恰似葡萄初醱醅.**' 此唯平聲之韻, 其響調叶上聲・去聲, 已屬杁鑿, 何也?" 한편 근세 鄭萬朝의 『科擧及科文』(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가람 351.3 G994)에서도 科詩의 평측률은 이백의 "**千金駿馬喚少妾, 笑坐雕鞍歌落梅.**"**의 음률을 본뜬 것이라고 했다.**

18) 蘇轍, 「詩病五事」, 『欒城集』 第三集 권8, "李白詩類其爲人, 駿發豪放, 華而不實, 好事者喜名, 而不知義理之所在也. 語用兵則先登陷陣, 不以爲難, 語游俠則白晝殺人, 不以爲非. 此豈其誠能也? 白始以詩酒奉事明皇, 遇讒而去, 所至不改其舊. 永王將竊據江・淮・白起而從之不疑, 遂以放死. 今觀其詩固然。唐詩人李・杜稱

이백이 漢 高祖「大風歌」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위 구절을 썼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그의 형 蘇軾은 이백 시 중 일부 작품이 이백의 작품이 아니라 唐末五代間의 齊已輩(제기 같은 승려 시인들)의 시라고 주장한 바도 있다.

이에 대해 蕭士贇은 "다른 판본에는 폐하의 수가 영원하리라 이하 세 구절이 없는데, 그것이 옳다. 소자유가 이를 보았다면 반드시 이치를 몰랐다는 비판에 **경솔하게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一本無陛下之壽以下三句者**, 是. 使蘇子由見之, 必不肯輕致不識理之誚矣."라고 補註하였다.[19] 이에 따라 『분류보주이태백시』 수록「胡無人」 역시 위 인용 구절 중 "陛下之壽三千霜" 이후가 제외되고 "漢道昌"으로 끝나는 것으로 교감된다. 청대 王琦는 후대 각종 판본에서 이렇게 마지막 세 구를 刪削해서 싣는 것이 蕭士贇의 『분류보주이태백시』로부터 비롯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20] 현재로선 소사윤이 말한 **"無陛下之壽" 以下의 三句가 없는 一本이 무슨 책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대만학자 黃永武는 敦煌本에도「호무인」 중 이 세 구절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소사윤의 설이

首, 今其詩皆在, 杜甫有好義之心, 白所不及也. **漢高祖歸豐沛, 作歌曰,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高帝豈以文字高世者哉? 帝王之度固然發於中而不自知也. 白詩反之曰, '但歌大風雲飛揚, 安得猛士守四方.' 其不識理如此, 老杜贈白詩有'重與細論文'之句, 謂此類也."** 인용문 중 **"重與細論文"은 두보의 「春日憶李白」(一作「春日懷李白」)의 마지막 구절이다.** 소철의 말은 『詩話總龜』 後集卷五 志氣門, 宋 胡仔 撰, 『漁隱叢話』 前集卷五 李謫仙 등에도 실려 있다.

19) 『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 二, 151면;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1, 479-480면. **소철이 이 구절들이 이백 시 같지 않다고 보았고, 元人들의 本은 이 때문에 이 세 구절들을 뺀 것이다. 이런 주장은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주석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士贇曰, 詩至'漢道昌', 一篇之意已足.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兮守四方?'一本無此三句者是也. 使蘇子由見之, 必不肯輕致不識理之誚矣. 東坡云: 今『太白集』之有'悲來乎'・'笑矣乎'及贈懷素草書數詩, 決非太白作, 蓋唐末五代間齊已輩詩也. 僕亦曰: 此詩末後三句, 安知非此輩所增乎? 致使太白貽譏於數百載之後, 惜哉! **雖然東坡能辨之, 顧瀆直致譏焉, 是亦足以定二蘇之優劣.** 今遂刪去後, 人具正法眼藏者, 必蒙賞音." 한편 蘇軾의 말은 『詩話總龜』 後集卷三十七 譏誚門, 『漁隱叢話』 前集卷五 李謫仙,「詩林廣記」 卷三 李太白 등에도 실려 있다.

20) 王琦 撰, 『李太白集注』 卷三, "漢高祖歌詩: '大風起兮雲飛揚, 威加海內兮歸故鄉, 安得猛士兮守四方?' **蘇子由譏此詩末三句爲不達理.** 蕭士贇曰, 詩至'漢道昌', 一篇之意已定[足]. 一本云無此三句者是也, 使蘇子由見之, 必不肯輕致不識理之誚矣. 東坡云: 今『太白集』有'悲來乎'・'笑已乎'・贈懷素草書數詩, 決非太白之作, 蓋唐末五代間齊已輩詩也. 僕亦曰: 此詩末後三句, 安知非此輩所增乎? 致使太白貽譏于數百載之後, 惜哉! 今遂刪去, 後人具正法眼藏者, 必蒙賞音. **後人録此詩者, 悉删去後三句, 蓋多從蕭本也.** 琦按: 『酉陽雜俎』云: 祿山反, 太白製「胡無人」, 言'太白入月敵可摧', 及祿山死, 太白蝕月. 蕭氏註從之, 謂此詩必作於上元間, 據太史之占而言. 今考『唐書』「天文志」, 初未嘗有太白入月之事, 而蕭妄引上元元年・三年月掩昴之文以當之, 誤矣. 玩'天兵照雪下玉關'之句當是開元・天寶之間爲征討四夷而作, 庶幾近是."

정확하다고 판단하였다.[21]

후술하겠지만 이 문제는 조선시대 지식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차천로는 소철과 소사윤 모두 이백의 「호무인」 시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선 지식인들이 이 시를 選詩하거나 모의할 경우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영향이 분명히 드러난다.

대표적인 사례로 『風騷軌範』에 選錄된 「胡無人」의 내용을 살펴보면 "胡無人, 漢道昌"으로 끝나서 이하 세 구를 생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은 조선 전·중기 유통 문헌 중 이백의 「호무인」 시를 수록한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잘 드러난다. 송대 郭茂倩의 『樂府詩集』에는 마지막 세 구절이 그대로 실려 있고 "胡無人, 漢道昌."이 한 번 더 반복된다.[22] 반면, 『唐文粹』나 明 高棅이 編纂한 『唐詩品彙』 권5 樂府 등에서는 생략된 세 구절이 실려 있지 않다. 특히 원시 중 "埋胡紫塞傍."의 '傍'자는 『분류보주이태백시』에서만 보이는 글자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한다.[23]

한편 『풍소궤범』의 편찬자 중 한 사람인 成俔은 이 「胡無人」 시에 차운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데, 이상의 논란을 의식한 듯 마지막 구절의 운자를 바꿔 쓰기도 했다.[24] 성현은 비록 원작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고 운자를 바꾸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호무인」을 재해석하고 있지만, "胡無人邦國寧."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아 『풍소궤범』 수록 내용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세 구를 빼고 모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胡無人」을 擬作할 때도 『분류보주이태백시』 수록 내용이 기준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25]

이상을 고려하면 조선 전기 문인들에게 소사윤에 의해 교감된 「胡無人」 시

---

21) 黃永武, 『敦煌的唐詩』, 臺北: 洪範書店, 1987, 41-42면.

22) 宋 郭茂倩 輯, 『樂府詩集』 권40 相和歌辭 瑟調曲.

23)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272면의 주석에서 이상의 異同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있다.

24) 成俔, 「胡無人」, 『虛白堂風雅錄』 권2, 한국고전번역원, 2017, 402면, "黑雲茫茫北風烈, 寒氣贔屭飛禽絶. 胡騎蹴踏陰山雪, 射殺雙狼爭飮血. 天兵暗度穿氐脫, 蚩尤憑陵助驅轍. 勢成破竹誰敢遏, 散投淵藪縮如鱉. 縮如鼈敵可滅, 取虎之子掃虎穴. 驅胡繫長纓, 賊胡奏天庭. 胡無人邦國寧."

25) 비슷한 사례를 후기 尹鳳五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尹鳳五, 「金台君弼充副价入胡中。以**胡無人漢道昌**爲韻。賦六篇贈行」, 『石門集』 권2, 한국문집총간속집 69, 민족문화추진회, 2008, 407-408면. 윤봉오의 경우도 마지막 세 구를 빼고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가 주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소철이 이 시의 마지막 세 구절이 이백 시 같지 않다고 의심했던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호무인」 시의 수용 사례는 조선시대 문인들에게 미친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서 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2) 「蜀道難」

역시 『분류보주이태백시』 권3 樂府에 실려 있는 「蜀道難」은 이백의 대표작 중 하나로 우리 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고려말 李穡은 「雪牛說」(『東文選』 권97)에서 이백 「촉도난」의 마지막 "촉 땅으로 통하는 길 오르기 힘든 어려움은, 푸른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운지라, 몸을 기울이고 서쪽을 바라보며 한숨만 길이 짓노라. **蜀道之難**, 難於上靑天, 側身西望長咨嗟."를 가져다 "설산의 소는 몸을 기울여 서쪽을 바라보는 것이다.雪山之牛, **側身西望者也**."라고 쓰기도 했다. 그 밖에도 많은 문인들이 이백 「촉도난」을 언급하거나 표현들을 가져다 쓰곤 했다.

「촉도난」은 본래 곡명으로 『樂府詩集』에 相和歌辭 瑟調曲으로 분류되어 있다. 17세기 鄭斗卿 같은 시인은 소년시절 의고악부시를 습작하며 이백 「촉도난」의 표현을 활용하기도 했다. 정두경은 이백 시의 '靑泥'("靑泥何盤盤, 百步九折縈巖巒")를 가져와 "땅은 험해 청니판이 있구나地險靑泥坂"(『東溟先生集』 권1 樂府)[26]라고 썼다.

차천로는 『五山說林草藁』에서 개성 松岳山 佛雲寺 銅佛의 뱃속에 이백이 친필로 쓴 「촉도난」의 草本이 간직되어 있다고 기록한 바 있다.[27] 그 내용이 오늘날 본과 다르다고 했는데, 그 예로 시의 처음 구절 '噫吁嚱' 세 글자가 초본에는 "吁咄哉"라 되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유사한 내용이 『지봉유설』

---

26)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이미지 참조).

27) "松岳山下佛雲寺, 有銅佛三像, 坐高五丈, 世傳第一座佛, 腹中藏李白「蜀道難」草本, 乃白手自寫, 多將今本有異, 塗竄處亦多. 首句噫吁嚱三字, 始曰吁咄哉, 後以淡墨改之. 有一開城都事者, 其子曰鄭文振, 搜得取去, 其佛後移于福靈寺, 余及見之, 後銷之鑄銃銅也."

에도 실려 있다.[28]

한편 이수광은 『지봉유설』의 다른 항목에서 필기(『宋景文公筆記』)를 인용하여 蜀지방 사람들이 사물보고 驚異롭게 느낄 때 '噫嘻吁'라고 한 것을 이백이 「촉도난」에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지금 본에는 ''噫吁嚱'로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29] **「촉도난」의 첫 구는 咸本에만 '噫嚱吁'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當代 유통본 대부분이 ''噫吁嚱'로 되어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유독 今本이라 지칭한 것은 『분류보주이태백시』일 가능성이 높다.**

『지봉유설』의 또 다른 조목에서도 「촉도난」 시의 창작배경에 대한 本註의 설명("爲子美在蜀而作")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여기서 본주라고 지칭한 것은 대체로 소사윤의 주석 내용 중 첫 번째 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사윤의 주석에는 이 시의 창작 배경과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과 자신의 생각을 객과 나의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제시된 설이 반드시 소사윤 자신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상에서 드러나듯 중기에도 今本은 대체로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백 시를 이해할 때 기본이 되는 주석은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들이었다. 이백 시를 수용할 때 『분류보주이태백시』본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3) 「別內赴徵三首」 其二

『분류보주이태백시』 권25 閨情에 수록된 「別內赴徵三首」 其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8) 『芝峯類說』 권14, 文章部七, 「詩藝」, "李白「蜀道難」詩稿, 舊藏松都佛雲寺佛腹, 近年爲無賴子竊去. 人有見其稿者, 多所竄改, 首句吁咄哉, 改以噫吁戱云. 白也聖於詩者, 宜不思而得, 而未免點竄, 可見古人作詩不容易矣. 金同知尙寓言普爲靈光郡守, 郡有武人家藏杜子美詩稿二紙, 其一乃負郭堂成蔭白茅詩也. 以濃墨點改處甚多, 乃平時得之漂流唐人者也. 杜詩有曰, '新詩改罷自長吟', 蓋是實事, 按李白「送張祖之序」首曰, '吁咄哉', 其言尤可信也." 「送張祖之序」는 「暮春江夏送張祖監丞之東都序」(『李太白文集』 권26)를 가리킨다.

29) 『지봉유설』 권7 文字部 文義, "筆記曰, '蜀人見物驚異, 輒曰噫嘻吁. 李白作「蜀道難」因用之.' 乃知噫嘻吁三字爲好云. 今本作噫吁嚱, 語意同耳." 이수광은 필기를 인용하여 '噫嘻吁'라고 기록하였지만 실제론 '噫嘻嚱'라고 기록되어 있다.

30) 도표 2 제25조 참조.

문 나서려니 아내가 옷 세차게 잡아당기며, 서쪽으로 가면 언제 돌아오냐고 내게 묻네.
올 때 혹여 황금인장 차게 된다면, 소진의 아내처럼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는 짓 모방하진 마시게나.
出門妻子强牽衣, 問我西行幾日歸.
來時儻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

이 시의 결구는 蘇秦이 秦王에게 유세를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초라한 몰골로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베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던 일을 典故로 하고 있다.(『戰國策』「秦策」) 이에 대해 이수광은 '不下機'는 소진의 아내 일이니 바로 '蘇秦不下機'라 표현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하였다.[31] 하지만 이는 이백의 오류라기보다는 『分類補注李太白詩』 수록 내용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후대의 異本들처럼 '學'자가 아니라 '見'자로 되어 있을 경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청대 왕기의 『이태백전집』에서는 마지막 구절을 "莫見蘇秦不下機"라고 하였고, 『분류보주이태백시』에는 '學'이라고 하였다고 교감주를 달아놓고 있다.[32] 이 역시 이수광 당대의 이백 시집 주요 통행본이 『분류보주이태백시』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

하지만 조선 중기까지의 이백 시 수용 양상이 모두 所依處로 『분류보주이태백시』만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 金安老(1481-1537)의 경우가 그런 예다. 그의 아버지 金訢(1448-1492)은 『풍소궤범』의 편찬자 중 한 사람이다. 이 책은 후술하겠지만 이백 시를 선별할 때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기준으로 삼은 흔적이 역연하다. 하지만 아들 김안로는 반드시 『분류보주이태백시』만을 이백 시의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던 듯하다. 김안로는 文定王后를 해

31) 도표 2 제30조 참조.
32) 왕기, 『이태백전집』 권24, 1187면; 첨영, 앞의 책 제24권, 3711-3712면. 이 책의 校記에 따르면, 蘇本(『분류보주이태백시』) 외에도 후대의 玉本, 郭本, 劉本, 嚴評本, 胡本, 全唐詩本 등이 모두 "莫學蘇秦不下機"로 되어 있다고 한다.

치려던 계획이 발각되어 죽음을 맞은 까닭에 그의 시문도 간행되지 못하였다. 후손가에만 전하던 그의 『希樂堂稿』 稿本은 모두 8권 6책으로 되어있고, 권1에서 4까지는 詩, 권5에서 8까지는 文으로 이루어져 있다.[33] 시의 경우 구절마다 단어의 전거 혹은 인용된 고사의 출처에 대한 自註가 달려 있다.[34] 이백 시를 전거 혹은 출처로 한 경우들을 『분류보주이태백시』와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1〉『希樂堂稿』의 自註 속 이백 시와 『분류보주이태백시』 비교

연번	『希樂堂稿』 내용	『希樂堂稿』의 自註 속 이백 시	『분류보주이태백시』	비고
1	권1「畫障子, 爲沈左相貞之公賦之」 "蒼骨小崢嶸, 寒菲吐幽白. 秋光隨意着, 郊墟斷人跡. 誰殘野塘秀, 折此山果赤. 野鼠飢出穴, 將雛恣啖暘. 嚙綠玉破殼, 咬紅雪溜液. 一兒蝟縮團, 傍母俯而嚼. 一兒人拱跪, 搖吻手竝作. 其一走且伺, 憎呾目豆劈. 自在禍斯遠, 充芳腸屢易. 折之猶可也, 果吾不甚惜. 愼勿窺玉井, 殘我如船碧."	○山谷詩, "石吾甚愛之. 勿遣牛礪角. 牛礪角尙可, 牛鬪殘我竹." 體格甚新. 然出於太白詩, "獨漉水中泥, 水濁不見月. 不見月尙可, 水深行人沒."	권4 樂府「獨漉篇」 "獨漉水中泥, 水濁不見月. 不見月尙可, 水深行人沒. (…)"	*『분류보주이태백시』 내용과 일치 **김안로가 沈貞을 위해 지어준 제화시에 대한 주석 ***黃庭堅, 「題竹石牧牛」(山谷集』 권3)
2	권1「廬山瀑布」(三首皆畫也) "日出香爐詩句裏, 銀河今見畫圖中. 半山林暗驚飛雹, 一道天明落霽虹. 造物豈容輕偉怪, 與人眞欲駭愚蒙. 座間寄語高吟者, 能爲徐凝洗俗聾." 중 "日出香爐詩句裏, 銀河今見畫圖中."	太白詩, "日出香爐生紫煙, 遙看瀑布掛長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九天."	권21 登覽「望廬山瀑布水二首」 중 두 번째 수 其二 日照香爐生紫煙, 遥看瀑布挂前川. 飛流直下三千尺, 疑是銀河落半天."	*『분류보주이태백시』 내용과 불일치
3	권2「堯卿和寄, 且送酒,復用韻謝之」 "學士龍團愧自塵, 何如羊酪暖生皴. 非關寒色搖成眩, 銀海靑朱亂發春."	古謂兩眼朱碧, 乃謂醉眼生花也. 劉夢得詩, "看朱成碧", 李白詩, "看朱成	권3 古樂府「前有樽酒行」 2수 두 번째 수 중 "看朱成碧顔	*『분류보주이태백시』 내용과 불일치

33) 金訢・金安老, 『顔樂堂集・希樂堂稿』, 건국대출판부, 1974. 이 책은 金一根의 소장본을 영인한 것으로 한국문집총간 21책에 수록된 『希樂堂稿』 역시 이 책을 다시 영인한 것이다.
34) 김덕수, 「『희락당고』 소재 한시 주석 연구」,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50-181면.

	중 “銀海靑朱亂發春”	碧顔始酡.”	始紅”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의 校記에 따르면 ‘酡’로 표기된 이본은 없는 것으로 보임. ***劉夢得, 「贈眼醫婆羅門僧」(『劉賓客文集』 권29)

이 중 2번과 3번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번의 자주에서 인용한 이백의 시는 「望廬山瀑布水二首」 중 두 번째 수인데, 인용된 내용은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분류보주이태백시』의 ‘前川’과 ‘ 半天’이 自註에선 ‘長川’과 ‘九天’으로 되어있다. 이는 대체로 이백의 문집류보다 類書, 選詩集, 詩話에 수록된 내용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35]

한편 3번의 경우는 현전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백 「前有樽酒行」 2수 중 두 번째 수 제4구 “붉은 것이 푸르게 보이는 것은 얼굴이 막 취기에 붉어졌을 때네看朱成碧顔始紅”의 ‘紅’자를 ‘酡’자로 기록하였는데 현전 판본 중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의미는 대동소이하지만 이 시가 東韻임을 고려할 때 김안로의 단순 인용 오류일 가능성도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김안로가 활용한 이백 시는 『분류보주이태백시』에 수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할 『풍소궤범』의 경우와 달리 김안로의 시대에는 私家에서 『분류보주이태백시』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던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이 세종대 간행되어 주요 관인들에게 반사되었고 **김안로의 아버지가 『풍소궤범』 편찬자 중의 한 사람**임을 고려할

35) 필자가 대조해본 결과 自註에 인용된 시의 원문은 宋 祝穆 撰, 『古今事文類聚』 前集 권18 地理部 泉(瀑布詩附見) 「廬山瀑布」조; 宋 姚鉉 編, 『唐文粹』 권16上 詩壬 古調歌篇五 登覽十五 「望廬山瀑布二首」조; 宋 洪邁 編, 『萬首唐人絶句』 권2 七言 「望廬山瀑布水」조; 宋 胡仔 撰, 『漁隱叢話』 後集 권4 李太白조; 宋 蔡正孫 編, 『詩林廣記』 권3 李太白, 「望廬山瀑布」조 등과 일치하였다. 현대 학자 詹鍈의 校記를 보면 이 시기까지 간행된 현전 이태백 문집 중 위와 같은 내용으로 된 경우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은 胡震亨의 『李詩通』이나 王琦의 『이태백전집』 등 청대 이후 간행된 이태백 문집에서 주로 발견된다.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六, 권19, 3028면.

때 예상과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4.『風騷軌範』에서의『分類補注李太白詩』수용 양상

알려진 것처럼『풍소궤범』은 중국에서 전래된 近體詩 중심의『瀛奎律髓』와『聯珠詩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의 古詩에 초점을 맞추어 편찬된 책이다. 1484(성종 15)년 成俔・權健・安琛・金訢・李昌臣・曺偉・申從濩가 편찬하여 간행하였다.『풍소궤범』에는 이백 시가 총 143수 실려 있다. 소식과 두보에 이어서 이백이 세 번째로 많은 수의 시가 실려 있는 만큼[36]『풍소궤범』에서 소식・두보・이백 시의 비중이 유달리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전고를 통해『풍소궤범』에 수록된 이백 시 목록을 편차 순으로 정리하고, 그 소종래 문헌을 추정한 바 있다.[37]『풍소궤범』에 수록된 총 143수의 이백 시는 단일한 문헌으로부터 온 것이라기보다 이백 시가 수록된 다양한 문헌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당시 궁중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헌들 중 이백의 문집 및 주석본 외에도『才調集』,『河嶽英靈集』,『文苑英華』,『樂府詩集』,『唐文粹』,『文章正宗』,『詩林廣記』,『古文眞寶』 前集,『古今事文類聚』,『風雅翼(選詩續篇)』,『唐詩品彙』 등이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준거가 되었던 책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분류보주이태백시』였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첫째,『풍소궤범』에는『분류보주이태백시』에만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둘째, 수록 원문을 고려할 때『분류보주이태백시』를 수용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대표적이 사례로 앞서 언급한「胡無人」시가 있다.[38]

---

36) 姚大勇,「《風騷軌範》簡述」,『古典文學常識』 2010年 第4期(總 第151期), 南京: 鳳凰出版社, 2010, 127면. 姚大勇은 수록 작품 통계를 낸 바 있는 데 이백 시가 124수 실려 있다고 보았지만 오류이다. 다만, 그는 수록 작품 수량을 기준으로 소속, 두보, 이백, 육유, 백거이, 위응물, 왕안석, 한유, 잠삼, 宋濂, 황정견 순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37) 졸고,「『風騷軌範』의『分類補註李太白詩』 수용과 재분류」,『한문학논집』 58, 근역한문학회, 2021, 303-351면 표1과 표2 참조.

38) 다만「南陵敍別」과 같은 극히 일부 예외적인 사례가 발견된다. 이 작품은『分類補注李太白詩』권

하지만 『풍소궤범』이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그대로 수용한 것만은 아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분류방식에 있다. 원래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분류방식은 현전 가장 이른 이백의 시문집을 편찬한 北宋 宋敏求가 분류한 뒤 曾鞏이 창작의 선후를 고려하여 배열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책은 蘇州太守 晏處善의 손에 들어가 毛漸이 校正 간행(1080년)하였다. 이 책을 보통 蘇本 혹은 晏處善本이라고 하는데, 현전 가장 이른 『李太白文集』(30권)이 이 계통에 속한다.[39]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분류는 宋蜀刻本(晏處善本)과 같은데, 다만 編排分卷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분류보주이태백시』 권1에 실려 있는 古賦가 宋蜀刻本에는 권25에 실려 있으며, 분류의 경우 사소한 용어 차이(예: 송촉각본의 別과 『분류보주이태백시』의 留別)나 동일 類를 上下로 분권하여 실은 것(송촉각본 권5 歌吟上 권6 歌吟下과 『분류보주이태백시』 권6 歌吟 권7 歌吟) 등의 차이가 발견된다.[40]

그런데 『풍소궤범』에 선록된 이백 시가 대부분 『분류보주이태백시』를 참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분류 체계와 방식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분류보주이태백시』가 시체와 제재/주제별 분류를 뒤섞어 21(22)類로 분류하고 있는 데 반하여,[41] 『풍소궤범』은 前集에서 詩體別로 23體 6格으로, 後集에서 類別로 21類 57賦로 분류하였다. **『풍소궤범』에선 몇 가지 분류방식 외에는 대체로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분류 기준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시를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수록된 이백 시를 기준으로 『풍소궤범』의 분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시체와 제재/주제별 분류기준을 일부 따르면서도 더 세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제재/주제별 분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방식의 분류를 시도했다. 셋째 『

15 留別의 「南陵別兒童入京」를 『古文眞寶』(前集 권5 七言古風 短篇) 수록 제목인 「南陵敍別」를 참조하여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원문은 정작 『분류보주이태백시』는 물론 『고문진보』와도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현재로선 분명히 알 수 없다.

39)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앞의 책, 4539-4540면.

40) 같은 글, 4566-4567면.

41) 『분류보주이태백시』는 古賦를 포함하면 22류, 시만을 대상으로 하면 21류로 분류하였다.

분류보주이태백시』에 비해 시적 공간과 제재/주제의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분류하였다.[42] 정리하자면 『풍소궤범』의 이백 시 분류는 『분류보주이태백시』를 의식한 흔적이 역연하면서도 『분류보주이태백시』 분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일부 보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조선 중기 비평에서의 『分類補注李太白詩』 수용 양상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分類補注李太白詩』는 대체로 조선 전기 이백 시 수용에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흐름은 중기까지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비평자료를 통해 중기의 상황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1) 車天輅의 주석 辨正

車天輅(1556-1615)는 당대 이백 시에 정통했던 인물로 평가 받았다.[43] 양경우의 『제호시화』나 이수광의 만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그의 시세계를 대표하는 意象은 '鼇'라고 할 수 있다.[44] 그런데 이 '鼇'라는 의상이 이백 시에서 유래한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45] 차천로의 이백 시에 대한 애호나 이해의 정도는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천로가 남긴 『五山說林(草藁)』은 그의 이백 시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잘 보여준다. 『오산설림』에

---

42) 이에 관해서는 졸고, 앞의 글, 2021, 329-346면 참조.

43) 사후 柳根의 만시에서도 이백 시에 정통했음이 언급되어 있다. 만시 내용은 다음 각주의 『지봉유설』 인용문을 참조할 것.

44) 졸고, 앞의 글, 2006, 5-36면.

45) 洪萬宗 編, 『詩話叢林』 冬, 『洪萬宗全集』, 太學社, 1980, 679-680면. "余與車五山, 行至龍灣, 一日五山邀余, 往遊九龍臺, …(中略)… 五山命坐其上, 使侍者連粘紙五六幅進筆硯, 將欲窮我, 余竊料此翁不可與爭多, 宜速賦一詩, 走避其鋒可也, 乃書短律一首以示, 時五山之作, 已就卄許韻也, 以左手捲紙, 以韜其側面, 而見余詩訖, 吟呻數三聲, 促令僕從, 整駕遂還其寓, 余又隨之, 强問其故, 五山發笑吐實曰: '吾之平生所喜用文字, 卽六鼇兩字, 而君詩中旣六鼇對九龍, 爲君所先, 神氣忽沮故罷還." 相對一笑, 蓋余詩有"山疑六鼇戴, 江倒九龍深.'之語故云."; 李睟光, 「文章部」 七 哀辭, 『芝峯類說』 原文, 乙酉文化社, 1975, 545면. "車五山之亡也, 柳西坰根爲挽詩, 一聯云, '老莊馬史偏多讀, **李杜韓詩是熟精**.' 此雖記實, 而挽語則未盡, 五山博洽多聞, 平生所讀而熟者, 不止此等書耳. 余亦爲挽詞, 有曰, '功名一世還無分, 宇宙千年始有君.' 又'延津劍去天收彩, **員嶠鼇亡地失靈**.' 又曰, '詞林浩氣三春盡, 學海長波一夕乾.' 西坰見之, 乃曰, '此句語, 足稱五山矣.' 西坰蓋未嘗不知五山者也."

선 모두 10조목에 걸쳐 이백 시문의 원문 확정 및 훈고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것은 『오산설림』에 실려 있는 시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뿐더러, 그 이해의 깊이에 있어서도 단연 두드러진다.[46] 차천로가 이백 시의 '鼇' 의상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이백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車天輅, 『五山說林』의 이백 관련 조목을 검토해 보면 대개 **시는 『분류보주이태백시』 등을 통해, 산문은 『古文眞寶後集』 등을 통해 수용했음이 드러난다.[47] 시의 경우 『분류보주이태백시』 외에도 여러 이본을 참고했음이 드러난다. 이백의 시를 언급할 때 注라고 한 것은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을 가리킨다.**

주목할 점은 차천로가 양제현과 소사윤 주석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오류를 지적하거나 미비처를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록된 이백 시에 대한 언급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차천로 『오산설림』 이백 시평과 『分類補注李太白詩』 주석 비교표

연번	권차	시제	시구	주	『오산설림』	비고
2	권24 感遇	寓言三首 중 其一	제3・4구 武王昔不豫, 剪爪投河湄.	[齊賢曰] 「金縢」曰, "旣克商二年, 王有疾, 弗豫." 注, 不悅, 豫. 史記與書, 皆言爲三壇, 周公北面, 植璧秉珪, 告于大王・王季・文王, 不言剪爪事.	「寓言」, "武王昔不豫, 翦爪[爪]投河湄." 注, "「金縢」王有疾不豫," 『史記』與『尙書』, 皆言爲三壇, 周公北面, 植璧秉珪, 告于大王・王季・文王, [不	※양제현 주석의 오류에 대한 비판

46) 이 점은 香港浸會大學 鄺健行 등이 編選한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란 책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들은 조선의 시화자료 중에서 차천로의 『오산설림』이 이백 시 주석에 관한 辨正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鄺健行・陳永明・吳淑鈿 選編,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 北京: 中華書局, 2002, 49-54면.

47) 『오산설림』 중 이백에 관한 첫 번째 조목은 「上韓荊州書」에 관한 내용인데, 『고문진보』 후집 권2에 수로된 이백 「與韓荊州書」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李白「上韓荊州書」, '靑萍結綠, 長價於薛下之門.' **『古文眞寶』後集注, '靑萍結綠, 皆劍名.' 此注誤甚.** 靑萍, 劍名, 出古書, 結綠, 玉名, 見范雎上秦王書. 薛薛蜀, 越之知劍者, 出越紀書. 下當作卞, 乃楚之卞和也. 이 밖에는 모두 시에 대한 변정 내용이다. 趙鍾業 編, 『韓國詩話叢編』 1, 東西文化社, 1989, 731면.

					言]翦爪事', 此注誤. 『史記』「蒙恬傳」及成王有病甚殆, 公早自■■■[齋翦爪]以沈於河, 蓋太白兼用之也.	
3	권11 贈	贈漢陽輔錄事二首 중 其一	마지막 두 구 應念投沙客,空餘弔屈悲.	[齊賢曰] 罷官, 解印也. 湄猶云濱也. 投沙客, 屈原也. 賈誼爲長沙王太傅, 渡湘水, 爲賦以弔屈原.	「贈漢陽輔錄事」, "應念投沙客, 空餘弔屈悲." 注, "投沙客, 屈原也." ■誤. 屈原作「懷沙賦」, 非投沙也. 按『史記』賈誼爲長沙王太傅, 及渡湘水, 爲賦以弔屈原. 今日投沙客者, 白被謫, 故自言如誼之投長沙也. 又有詩日, "投沙弔楚臣.(「贈崔秋浦」)" 又日, "已作投沙伴.(「流夜郎至西塞驛寄裘隱」)"	※양제현 주석의 오류에 대한 비판
4	권3 樂府	胡無人	마지막 부분 胡無人, 漢道昌,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守四方.)	[士贇曰] 詩至"漢道昌", 一篇之意已足.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兮守四方?" 一本無此三句者是也. 使蘇子由見之, 必不肯輕致不識理之誚矣. 東坡云: 今『太白集』之有'悲來乎'·'笑矣乎'及贈懷素草書數詩, 決非太白作, 蓋唐末五代間齊已輩詩也. 僕亦日, "此詩末後三句, 安知非此輩所增乎?? 致使太白貽譏於數百載之後, 惜哉! 雖然東坡能辨之, 穎濱直致譏焉, 是亦足以定二蘇之優劣. 今遂刪去後, 人具正法眼藏者, 必蒙賞音.	「胡無人」, 其終, "胡無人, 漢道昌,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守四方." 蕭士贇注日, 一本無陛下之壽以下三句者是. 使蘇子由見之, 必云如何也, 此註大可笑. 穎濱嘗日, "李白詩有不識理處, 漢高「大風歌」, 安得猛士守四方者, 乃帝王安不忘危之意也. 白日安用猛士守四方何也." 今注白詩者, 去此三句, 以解嘲於穎濱. 楚則失矣, 齊亦未爲得也, 白既以胡無人命篇, 乃日, "胡無人則漢道昌矣, 陛下當壽三千霜矣, 今日但歌大風而已,	*『분류보주이태백시』에는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兮守四方?"이 없음 **차천로가 말한 一本은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이 구절들이 이백 시 같지 않다는 蘇轍의 주장 및 소사윤 주석에 대한 비

					將安用猛士也.”語意甚明白, 彼二子不及知, 異哉.	판.
5	권4 樂府	鞠歌行	마지막 두 구 奈何今之人, 雙目送飛鴻.	[士贇曰]潘岳詩“命也可柰何”,『管子』「法言篇」(霸形篇의 오기?)桓公在位, 管仲隰朋見, 立有問, 有二鴻飛過. 桓公嘆曰, “仲父, 今彼鴻鵠有時而南, 有時而北, 四方無遠, 所欲至而至焉. 唯羽翼之故, 寡人有仲父, 猶飛鴻有羽翼也.”此詩蓋深嘆今之人無知人之鑒, 卒之無可奈何, 唯雙目送飛鴻以寄興耳. 太白負才而不用於時, 豈亦有感而作乎.	「鞠歌行」, “奈何今之人, 雙目送飛鴻.”注, “引齊桓公與管仲語鴻鴈之事”, 誤甚.『史記』「孔子世家」, 衛靈公與孔子語, 見蜚鴻, 仰視之, 色不在孔子, 孔子遂行. 白詩又曰, “目色送飛鴻, 邈然不可攀.”亦使此事.	※소사윤 주석 중 오류부분에 대한 비판과 수정 *청대 王琦의 주석 내용과 일치, 차천로의 선구적 주석 **潘岳, 「悼亡詩三首」 其二 (『文選』 권23 哀傷), “命也可奈何” ***권10 贈, 「遊溧陽北湖亭望瓦屋山懷古贈同旅」, “目色送飛鴻, 邈然不可攀.”
6	권6 樂府	枯魚過河泣	마지막 두 구 萬乘愼出入, 柏人以爲識.	[齊賢曰]『史』「張耳傳」, 漢七年, 高祖從平城過趙, 趙王朝夕袒韝蔽, 目(自?)上食, 禮甚卑, 有子婿禮. 高祖箕踞, 甚慢易之. 趙相貫高等, 爲氣怒, 欲殺高祖. 漢八年, 上從東垣還, 過趙, 貫高等乃壁人栢人, 要之, 及上欲過宿, 心動, 問曰, “縣名爲何?”曰, “栢人.” “栢人者, 迫於人也.”不宿而去. 九年, 貫高怨家, 上變告之, 於是上皆并逮捕, 治張敖之罪. 識, 一作誡.	「枯魚過河泣」, “萬乘愼出入, 柏人以爲戒.”柏人當作柏谷.『史記』「張耳傳」, 從東垣還過趙貫高等, 乃辟人柏人之置此, 高祖非▣行也. 潘岳「西征賦」, “長傲賓於柏谷, 妻覩貌而獻餐.”注, “漢武帝微行, 夜至柏谷亭, 長欲殺之.”云云。	※양제현 주석 인용 후 자신의 시각으로 원문 교감 『분류보주이태백시』에도 ‘識’으로 되어 있음

7	권3 樂府	俠客行	21・22구 縱使俠骨香, 不慙世上英.	관련 주석 없음	“縱使俠骨香, 不慙世上英.” 使當作死, 王維詩 “縱死猶聞俠骨香.” 曾見一本, 亦如此.	「俠客行」 시 원문 교감
8-1	권12 贈	贈宣城趙太守悅	마지막 네 구 溟海不振蕩, 何由縱鵬鯤. 所期玄津白, 倜儻假騰騫.	관련 주석 없음	「贈宣城趙太守悅」, “溟海不振蕩, 何由縮鵬鵾. 所期玄津白. 倜儻假騰騫.” 縮, 縱字之誤, 玄津白, 要津日之誤.	「贈宣城趙太守悅」 시 원문 교감, 다만 『분류보주이태백시』의 경우 원래 ‘縮’자가 ‘縱’자로 되어 있음
8-2	권22 懷古	紀南陵題五松山	제9・10구 伊尹生空桑, 指庖佐皇極. 제13・14구 三年帝道明, 委質終輔翼.	관련 주석 없음	「紀南陵題五松山」, “伊尹生空桑, 指庖佐皇極.” 指當作損. “三年帝道明, 威質終輔翼.” 威當作委.	「紀南陵題五松山」 시 원문 교감,
9	권9 贈	贈韋侍御黃裳二首 其二	제5・6구 我如豐年玉, 棄置秋田草.	관련 주석 없음	「贈韋侍御」, “我如豐年玉, 棄置秋田草.” 『世說』, “世稱庾文康爲豐年玉, 穉恭爲荒年穀.”	해당 구절에 대해 『世說新語』, 「賞譽」 편의 내용으로 주석 추가
10	권24 感遇	效古二首 其二	제1・2구 自古有秀色, 西施與東隣.	관련 주석 없음	「效古」, ‘自古有秀色, 西施與東隣.’ 宋人有非此詩者曰, ‘太白以東施爲東隣, 是牽於押韻. 殊不及東坡.’ 坡有詩曰, ‘絳蠟銷殘玉熒飛, 離歌唱徹萬行啼. 他年一舸鴟夷去, 記取儂家舊姓西.’ 此豈爲韵所拘者耶? 此可謂管見, 按東家施西家施者, 有施氏兩人, 故以東西別之, 則西非姓也. 白之東隣云者, 乃用司馬相如「美人賦	※이전 주석과 비평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해석, 여기서 宋人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관련 내용이 宋 阮閱 撰, 『詩話總龜』 後集 권18 「辯疑門」, 宋 葛立方 撰,

					」語, 不必指東施也.	『韻語陽秋』 권6, 宋 魏慶之 撰, 『詩人玉屑』 권7 「爲韻所牽」(『丹鵬集』으로 출처 표기) 등에 보임 후대 淸 王琦의 주석 내용과 유사함

분석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차천로의 이백 시 辨正은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을 기반으로, 기존 주석을 보완하거나 문제점을 바로 잡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양제현 주석의 오류에 대한 비판과 교정이 두드러지며 소사윤 주석에 대한 비판과 교정 내용도 발견된다.

먼저 양제현 주석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자. 『오산설림』 제2조에선 「寓言三首」 其一의 제3·4구 "무왕이 예전에 중병에 걸렸을 때, 주공이 손톱을 깎아 황하에 던졌지武王昔不豫, 剪爪投河湄." 중 '剪爪'에 대한 양제현 주석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양제현은 『서경』과 『사기』에 관련 내용이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정작 '손톱을 자른다剪爪'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 밝히지 못하였다.[48] 이에 대해 차천로는 이것이 『史記』 「蒙恬列傳」의 성왕이 병에 걸리자 주공이 자신의 손톱을 잘라 황하에 던지고 자신의 몸으로 대신하겠다고 기도했다는 기록에서 유래한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곧 이백이 『서경』과 『사기』의 내용을 겸해서 쓴 표현이란 주장이다.[49]

---

48) [齊賢曰] "「金縢」曰, '旣克商二年, **王有疾, 弗豫.' 注, 不悅, 豫. 史記與書, 皆言爲三壇, 周公北面, 植璧秉珪, 告于大王·王季·文王,** 不言剪爪事." 여기서 '**三壇'은** 太王·王季·文王을 위한 祭壇을 가리킨다. 『서경』 「金縢篇」에 "세 단을 만들되 선을 같이 했다.三壇同墠"는 내용이 나온다. 주공은 太王·王季·文王을 위해 3개의 祭壇을 쌓고 제문을 지어 올린 바 있다. 한편 차천로 『오산설림』에 대한 기존 역주본에서 이 구절이 누구의 주석인지 미상이라고 처리한 바 있으나, 이 주석은 제시한 것처럼 양제현의 주석이다. 鄭健行·陳永明·吳淑鈿, 『우리나라 선비들의 中國시 이야기』, 이장우·박한규·최계량 역주, 영남대출판부, 2012, 307면 각주 8번.

49) 「寓言」, "武王昔不豫, 翦爪[爪]投河湄." 注, "「金縢」王有疾不豫," 『史記』與『尙書』, 皆言爲三壇, 周公北

제3조에선 「贈漢陽輔錄事二首」 其一의 마지막 두 구 "응당 생각하리니 장사로 내쳐진 나그네가, 굴원 애도하는 슬픔 공연히 남겼음을應念投沙客, 空餘弔屈悲." 중 '投沙客'을 양제현은 굴원으로 보았지만 차천로는 굴원이 아니라 賈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바로잡았다. 굴원은 「懷沙賦」를 짓긴 했지만 돌을 안고서 투신자살한 것은 아니다. 이는 『사기』 「가의열전」에 나오는 것처럼 가의가 참언으로 인해 황제의 신임을 잃고 長沙王의 太傅로 貶謫되어 湘水를 건너며 굴원의 혼을 위로한 일을 말한다. '장사로 내쳐진 나그네投沙客'란 유배가는 이백 자신의 처지를 가의에 빗댔다는 설명이다. 차천로는 또한 이백의 또 다른 작품 두 수를 들어 投沙客 의 의미를 방증하고 있다. 시구의 풀이에 "以詩解詩"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50]

다음으로 소사윤의 주석에 대한 언급들을 살펴보자. 차천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胡無人」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 대한 논란을 두고 『분류보주이태백시』 수록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신하였다. 『오산설림』 제4조에선 마지막 내용이 이백 시 같지 않다는 蘇轍의 주장이나 이를 받아들여 마지막 세 구절을 빼고 보아야 한다는 소사윤의 주석 모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陛下之壽"이하 세 구절이 없는 본이 맞다고 본 소사윤의 주석을 대단히 가소롭다("此註大可笑")라고 비판했다.[51] 제5조에선 「鞠歌行」에 대한 소사윤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현전하는 이백 시에는 두 수의 「鞠歌行」이 있는데, 차천로가 지적한 구절은 『분류보주이태백시』 권4 樂府에 수록된 작품의 마지막 두 구절이다.[52] 소사윤은 "어찌하여 지금 사람들은, 두 눈으로 날아가는 기

面, 植璧秉珪, 告于大王・王季・文王, [不言]翦爪事', 此注誤. 이『史記』「蒙恬傳」及成王有病甚殆, 公早自■■■[齋翦爪]以沈於河, 蓋太白兼用之也.

50) 「贈漢陽輔錄事」, "應念投沙客, 空餘弔屈悲." 注, "投沙客, 屈原也." ■誤. 屈原作「懷沙賦」, 非投沙也. 按『史記』賈誼爲長沙王太傅, 及渡湘水, 爲賦以弔屈原. 今曰投沙客者, 白被謫, 故自言如誼之投長沙也. 又有詩曰, "投沙弔楚臣.(「贈崔秋浦」)" 又曰, "已作投沙伴.(「流夜郎至西塞驛寄裴隱」)"

51) "**「胡無人」,** 其終, "胡無人, 漢道昌, 陛下之壽三千霜. 但歌大風雲飛揚, 安用猛士守四方." **蕭士贇**注曰, **一本無陛下之壽以下三句者是.** 使蘇子由見之, 必云如何也, **此註大可笑.** 穎濱嘗曰, "李白詩有不識理處, 漢高「大風歌」, 安得猛士守四方者, 乃帝王安不忘危之意也. 白曰安用猛士守四方何也." **今注白詩者, 去此三句, 以解嘲於潁濱.** 楚則失矣, 齊亦未爲得也, 白旣以胡無人命篇, 乃曰, "胡無人則漢道昌矣, 陛下當壽三千霜矣, 今日但歌大風而已, 將安用猛士也." 語意甚明白, 彼二子不及知, 異哉."

52) 또 다른 동명의 작품은 『文苑英華』에 위 시 다음 작품으로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 청대 王琦의

러기만 보는가奈何今之人, 雙目送飛鴻."에 대한 주석에서 齊 桓公과 管仲이 鴻鴈을 말한 고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해 차천로는 『史記』「孔子世家」에 나오는 衛靈公이 공자와 같이 앉아 말하다가 기러기를 보느라 시선이 공자에게 머물지 않자 공자가 떠났다는 내용과 이백의 「遊溧陽北湖亭, 望瓦屋山懷古, 贈同旅」의 구절("주인의 눈은 날아가는 기러기만 보니, 아득하여 붙잡을 수가 없네目色送飛鴻, 邈然不可攀.")을 들어 그 오류를 지적하였다.[53] 이는 후일 청대 **王琦의 주석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차천로의 이백 시에 대한 높은 식견과 선구적 안목을 보여준다.**[54]

이상을 통해 차천로의 이백 시 이해에 『분류보주이태백시』가 중요한 준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6조 「枯魚過河泣」나 제8-1조의 「贈宣城趙太守悅」의 경우처럼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원문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55] 대부분의 경우 차천로는 『분류보주이태백시』를 기준으로 이백 시를 수용하였음이 드러난다. 이점은 조선 중기 이백 시 이해에 『분류보주이태백시』가 미친 영향력을 가늠하게 한다.

다만 차천로는 『분류보주이태백시』에 수록된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에 만족하지 않고 주석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백 시를 좀 더 분명하게 해명하고자 했다. 『분류보주이태백시』에 없는 주석을 추가한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제9조 「贈韋侍御黃裳二首」 其二 제5·6구 "나는 풍년의 옥 같은 인재지만, 가을밭의 풀처럼 버려졌구나我如豐年玉, 棄置秋田草."에 대해 『世說新語』「賞譽」 편의 "세상에서 말하길 庾亮은 풍년일 때의 옥이고, 庾翼은 흉년일 때의 곡식이다世稱庾文康爲豐年玉, 穉恭爲荒年穀."

주석에는 작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전 『문원영화』 판본에는 羅隱의 시로 기록되어 있다. 이영주 외 역주, 『이태백 시집』 7, 학고방, 2015, 328면 해제 참조.

53) 「鞠歌行」, "奈何今之人, 雙目送飛鴻." 注, "引齊桓公與管仲語鴻鴈之事", 誤甚. 『史記』「孔子世家」, 衛靈公與孔子語, 見蜚鴻, 仰視之, 色不在孔子, 孔子遂行. 白詩又曰, "目色送飛鴻, 邈然不可攀." 亦使此事.

54) 王琦 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면.

55) 차천로는 「枯魚過河泣」의 "萬乘愼出入, 柏人以爲戒."의 '柏人'을 '柏谷'으로 써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潘岳「西征賦」 "長儌竇於柏谷, 妻覩貌而獻餐."에 대한 注 "漢武帝微行, 夜至柏谷亭, 長欲殺之."를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런데 차천로가 인용한 「枯魚過河泣」의 마지막 구의 '戒'자는 『분류보주이태백시』에 '讖'자로 되어 있다. 또한 인용한 「贈宣城趙太守悅」의 "溟海不振蕩, 何由縮鵬鷁."도 『분류보주이태백시』에는 '縮'자가 '縱'자로 되어있다.

을 전고로 제시하였으며, 제10조「效古二首」其二 제1・2구 "예로부터 빼어난 미인 있었으니, 서시와 東家子라네自古有秀色, 西施與東隣."에 대해서도 西施와 東施할 때의 東施를 韻字 때문에 '東隣'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司馬相如「美人賦」의 말을 가져다 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제2조와 3조에서 양제현의 주석을, 제4조와 5조에선 소사윤의 주석을 辨正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해석시각을 드러내었다.

홍콩학자 鄺健行 등은 일찍이 한국 시화자료에서 중국시를 논한 자료들 중 빼어난 내용들을 뽑아 중국의 中華書局에서 출간한 바 있다.[56] 한국 시화 중 중국시 변증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 것이 바로『오산설림』이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대를 앞서간 차천로의 비평안목이 해외 중문학 연구자의 눈에도 포착되었던 것이다.

『오산설림』에서 확인되는『분류보주이태백시』에 대한 비판적 수용태도는 차천로와 가깝게 교유했던 이수광에게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 李睟光의 주석 辨正

조선 중기 가장 영향력 있는 비평가 중의 한 사람인 李睟光(1563-1629)의『지봉유설』에는『분류보주이태백시』와 관련된 언급들이 다수 발견된다. 文章部에 실려 있는 당시 관련 기사 중 杜甫(63조) 다음으로 많은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이 李白(39조)이라고 한다.[57]

『지봉유설』 역시『오산설림』과 유사하게 楊齊賢과 蕭士贇의 주석을 그저 註 혹은 本註라 언급해서 이 시기 수용된 이백 시의 대표적 주석이 두 사람의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책의 주석은『古文大全』(『詳說古文眞寶大全』) 註와 같이 서명과 함께 언급하여 별도로 구분하였다. 이수광이 이백 시를 이해하는 기본 출발점이『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주석을 수용하는 동시에 자신 나름의 판단을 근거로 주석의 문제

56) 鄺健行・陳永明・吳淑鈿, 앞의 책.
57) 박수천,『芝峯類說 文章部의 批評樣相 硏究』, 태학사, 1995, 44면. 박수천은 39조라고 한정했지만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이백을 언급한 단편적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이보다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만큼 수동적이기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장부」 唐詩에 수록된 이백 시에 대한 언급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 3〉 이수광 『지봉유설』 문장부 당시 이백 시평과 『分類補注李太白詩』 주석 비교표

연번	권차	시제	시구	주석	『지봉유설』	비고
1	권15 留別	留別龔處士	贈君卷葹草, 心斷竟何言"	[齊賢曰]葹草, 『詩』謂之卷耳, 「爾雅」謂之苓耳.	唐詩曰"幽徑還生拔心草", 按卷施草, 拔心不死故名. 施一作葹. 李白詩曰"贈君卷施草, 心斷竟何言"註, 「離騷」云"賓棻葹以盈室", 『詩』所謂卷耳, 是也.	※양제현의 주석을 수용하여 낙빈왕의 시어 고증에 활용. *駱賓王, 『駱丞集』 권2 七言古風, 「艷情代郭氏荅盧照鄰」, "幽徑還生拔心草"
2	권23 閑寂	尋雍尊師隱居	제5・6구/경련 花暖青牛臥, 松高白鶴眠.	[齊賢曰] 青牛, 花葉上青蟲也, 有兩角如蝸牛, 故云.	李白「尋雍尊師隱居」詩曰, "花暖青牛臥, 松高白鶴眠."註, "青牛花葉上青蟲也, 有兩角如蝸牛故云." 余謂青牛蓋用老子事, 以尊師隱居不出, 故青牛閑臥也. 註說誤矣. **于鵠「贈王尊師」詩**, "青牛**眠樹影, 白犬吠猿聲.**" 亦此意.	※양제현의 주석에 대한 비판 및 수정. 양제현 주석 인용 내용이 『분류보주이태백시』와 글자 차이가 있음. *양제현의 주석 내용은 청대 王琦의 『李太白集注』 권23에도 그대로 전재된 바 있음[58]
3	권4 樂府	司馬將軍歌	제3구 北落明星動光彩	[齊賢曰]『甘氏星經』曰, "北落師門, 一星, 在羽林軍西南, 星明而角, 則軍安寧, 小暗則天下起兵."	李白詩"北落明星動光彩", 按馬『史』, "北落師門一星, 在羽林西, 明則軍安, 微弱則兵起, 金火守有兵, 爲虜犯塞"云. 『事文玉屑』曰, "北落, 壁壘星也."	※양제현과 주석과는 다른 전거를 들어 설명함 *29조에서 이 시의 다른 구절 언급
4	권3 古樂府	俠客行	제21・22구 縱使俠骨香, 不慙世上英.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 "縱使俠骨香, 不慙世上英." 使疑作死字. 按張華詩云"死聞俠骨香", 蓋用此, 而王維	유사한 내용이 『오산설림』 7조에도 보임. 王維 시 인용 내용 일치

					詩亦曰“縱死猶聞俠骨香”.	*張華,「博陵王宮俠曲二首」其二(『藝文類聚』권33, 人部十七 遊俠; 明 馮惟訥 撰,『古詩紀』권31, 晉第一) “死聞俠骨香” **王維,「少年行二首」其二,“縱死猶聞俠骨香”
5	권7 歌吟	江上吟	제1구 木蘭之枻沙棠舟	[齊賢曰]「蜀都賦」,“木蘭梫桂”, 註, “木蘭, 大樹, 葉似長生, 冬夏榮.”「上林賦], “沙棠櫟槠”, 註, “沙棠狀如棠, 黃葉赤實, 其味如李, 無核.”『楚辭』, “桂櫂兮蘭枻”,『廣記』, “漢成帝與飛燕戲太液地, 以沙棠爲舟, 以紫文桂爲栧枻.” [士贇曰]『楚辭』, “桂櫂兮蘭枻”	李白詩“木蘭之枻沙棠舟”, 按古書曰“魯班用木蘭造舟, 又漢成帝與飛燕戲太液池, 以沙棠作舟.” 小說云“沙棠, 木名, 在崑崙, 黃花赤實, 爲舟不沈, 食其實不溺是也.”	※이수광이 양제현과 소사윤 주석과는 다른 내용의 전거를 들고 있음. 양제현은 左思의「蜀都賦」, 司馬相如의「上林賦」,『楚辭』「九歌・湘君」,『太平廣記』권236 沙棠舟조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 소사윤도『楚辭』「九歌・湘君」을 인용하였음.
6	권15 留別	別東林寺僧	전・결구 笑別廬山遠, 何煩過虎溪.	[齊賢曰]廬山在江州南三十里, 二林寺在山之南五里許, 小嶺可到, 兩寺相隣, 規制廣袤若一大縣. 水石深怪, 古跡無窮. 東林三門內有小渠名曰虎溪, 遠師送客, 未嘗過溪. 西林卽永法師所居, 規制稍不	李白「別東林寺僧」詩, “笑別廬山遠, 何煩過虎溪.” 遠, 廬山僧惠遠也, 乃用虎溪三笑事以譬之. 今人或有以遠近觀之者, 可笑.	양제현 주석을 바탕으로 이해. ※이수광이 전구 “ 笑別廬山遠”의 ‘遠’자를 두고 “今人或有以遠近觀之者, 可笑”라고 지목한 今人은 누구인지 알 수 없음.

				及東林.		
7	권25 哀傷	哭晁卿行	시 전문 日本晁卿辭帝都, 雲帆一片遶蓬壺. 明月不歸沈碧海, 白雲愁色滿蒼梧.	[士贇曰]日本國蓬壺碧海蒼梧白雲等事並見前.	李白「哭晁卿」詩曰, "日本晁卿辭帝都, 雲帆一片遶蓬壺. 明月不歸沈碧海, 白雲愁色滿蒼梧." 細味此詩, "明月不歸沈碧海"云, 則疑晁卿溺海不返耳. 按晁卿卽朝臣, 『唐書』長安元年, 日本遣朝臣貢方物, 朝臣好學能屬文, 請從諸從諸儒授經, 拜司膳員外郎云. 王維亦有「送晁監還日本」律詩及序, 蓋職爲卿監, 故曰晁卿晁監.	※이수광이 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사신 晁衡(晁衡, 朝衡)이 익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함. 아울러 『당서』를 인용하여 조경에 대한 추가 주석 제시 *晁衡(晁衡, 朝衡)은 아베노 나카마로(阿倍仲麻呂)로 일본에서 당나라로 유학을 온 인물로 天寶12(753)년 12월에 일본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베트남에 표류하였고 이후 다시 장안으로 돌아와 관직생활을 하다가 당나라에서 생을 마쳤다.
8	권3 古樂府 권22 懷古	烏夜啼 盧江主人婦	제3-6구 機中織錦秦川女, 碧紗如煙隔牕(片+忽)語. 停梭悵然憶遠人, 獨宿孤房淚如雨. 마지막 구 城烏獨宿夜空啼	관련 주석 없음 관련 주석 없음	李白「烏夜啼」詩, 有曰 "機中織錦秦川女, 碧紗如烟隔窓語. 停梭悵然憶遠人, 獨宿孤房淚如雨." 又曰 "城烏獨宿夜空啼", 按古書曰 "烏失雌雄則夜啼.", 詩意蓋以此也.	※이수광이 서로 다른 이백 작품을 연결시켜 새로운 주석 제시 *張華의 『禽經注』: "烏之失雄, 雌則夜啼."
9	권3 古樂府	上雲樂	마지막 두 구 天子九九八十一萬歲, 長傾萬歲杯.	[齊賢曰]詩云, "如南山之壽, 不騫不崩." 梁周捨「上雲樂」曰 "願明陛下壽千萬歲, 歡樂未渠	李白詩曰, "天子九九八十一萬歲, 歲歲長傾萬壽杯." 按『混元聖紀』云 "太上生後八十一萬歲,	※양제현의 관련 주석이 있으나, 분명한 근거를 들어 시어의 소종래를 새롭게 밝

				央."	乃生一氣." 詩語本此.	힘. *시 원문에 차이가 보이나, 현전본 중 『지봉유설』 인용 내용 같은 경우가 발견되지 않음.
10	권8 歌吟	峨眉山月歌	시 전문 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夜發淸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	관련 주석 없음	李白「峨眉山月歌」日, "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夜發淸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 唐汝詢云"君者指月而言, 三峽之間, 天狹如線, 半輪亦不復覩, 故下渝州以求見之." 未知是否. 余謂此詩古今人所膾炙, 而峨眉山・平羌江・淸溪・三峽・渝州, 未免重疊, 若後人爲之, 豈不指以爲疵乎.	당여순 주석 내용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뒤 이수광 자신의 생각 제시.
11	권18 送	送韓侍御之廣德	제3・4구/전・결구 暫就東山賒月色, 酣歌一夜送泉明.		李白詩"日就東山賒月色, 酣歌一夜送泉明." 按泉明卽淵明, 唐人避高祖諱, 改淵爲泉. 韓翃詩"聞道泉明居止近, 藍輿相訪會淹留." 亦此也.	*시 원문에 차이가 보임 **韓翃, 「送客歸江州」: "聞道泉明居止近, 藍輿相訪會淹留." 이 내용은 주석 내용을 고려할 때 楊愼의 『升菴集』 권58 「泉明」을 참조했을 가능성이 있음.
12	권8 歌吟	秋浦歌十七首 其十二	전・결구 耐可乘明月, 看花上酒船.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耐可乘明月, 看花上酒船." 又"耐可乘流直上天", 耐可, 『韻府』日"猶言如何可也."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에서 언급된 바 없는 내용으로, 이수광의 독자적인 주석

	권20 遊宴	陪族叔刑部侍郎曄?及中書賈舍人至遊洞庭五首 其二	제2구 耐可乘流直上天		或云“耐, 古能字, 通用. 猶言可能也.”	임.
13	권23 閑適	春歸終南山松龍舊隱	마지막 구절 獨酌陶永夕	[齊賢曰]謝惠連詩“漾舟陶嘉月”,『爾雅』曰, “陶, 喜也.”	李白詩云, “獨酌陶永夕”註, 『爾雅』曰, “陶, 喜也.” 陶潛詩云, “濁酒且自陶”, 謝惠連詩, “漾舟陶嘉月”, 『選文』云“尹班陶陶於永夕”, 蓋用此也.	※양제현의 주석 내용을 수용한 경우, 배열 순서는 다름. 여기에 劉孝標의「廣絶交論」에 나오는 용례를 추가함. 謝惠連, 「西陵遇風獻康樂一首」“漾舟陶嘉月”(『文選』 권25 贈答下) 陶潛, 「已酉歲九月九日」“濁酒且自陶”(『陶淵明集』 卷三) 劉孝標, 「廣絶交論」, “尹班陶陶於永夕”(『文選』 卷五十五 論下)
14	권20 遊宴	夜泛洞庭尋裴侍御清酌	제7・8구 抱琴出深竹, 爲我彈鵾鷄.	[齊賢曰]「吳都賦」, “鳥則鵾鷄”,鵾鷄, 曲名, 古琵琶絃, 用鵾鷄筋.	李白詩, “抱琴出深竹, 爲我彈鵾鷄.”註, 鵾鷄, 曲名. 按琵琶絃用鵾鷄筋. 庾信詩曰“一鵾曲鷄絃.”是也. 「蜀都賦」云, “巴姬彈絃.” 李白詩亦云, “彈絃醉金罍.” 以此觀之, 彈鵾鷄卽絃也, 非曲名也.	※양제현 주석 내용 두 가지 중 후자를 선택하여 증명함. “一曲鵾雞絃” (庾信, 「春日離合二首」 其二, 『庾開府集箋註』 권5) “巴姬彈絃.”(左思, 「蜀都賦」)

						“彈絃醉金罍”(권20 遊宴「금릉 봉황대에 술을 차려놓다 金陵鳳凰臺置酒」)
15	권4 樂府	妾薄命	제9구 雨落不上天	[士贇曰] 陳琳「檄吳將校」曰“雨絶耳天”, 王粲詩曰“一別如雨”, 濟曰“如雨之降不還雲中也.”	李白詩云“雨落不上天, 水覆難再收.” 註, “陳琳檄曰‘雨絶耳天’, 王粲詩曰‘一別如雨’.” 言如雨之降而不還也. 獨孤及詩曰“荏苒成雨別”, 亦此也.	※소사윤 주석을 수용한 뒤 전거로 삼을 만한 예시를 하나 더 추가함 33조에서도 「妾薄命」의 다른 구절을 언급함 *王粲, “一別如雨”와 濟曰“如雨之降不還雲中也.”(『文選』 권23 贈答上 「贈蔡子篤詩」와 呂延濟의 주석) **獨孤及, “荏苒成雨別”(『唐詩品彙』 권17 五言古詩 羽翼下, 「海上寄蕭五」)
16	권5 樂府	怨歌行	제13・14구 鸂鶒換美酒, 舞衣罷雕龍.	[士贇曰] 「七略」“雕龍赫” 註曰, “言操修鄒衍之術, 若雕鏤龍文也.” 此言雕龍者, 謂舞衣上之雕畫龍文也.	李白樂府曰“鸂鶒換美酒, 舞衣罷雕龍.” 註, “雕龍, 舞衣上之雕畫龍文也.” 余謂此詩押東韻, 不應通押, 而註說亦太曲. 龍作櫳似是.	※이수광은 소사윤의 주석을 소개한 뒤, 운자의 通押이 불가함을 고려하여 “舞衣罷雕龍”이 아니라 “舞衣罷雕櫳”라고 교감하며 소사윤의 주석을 비판함. 다만 ‘雕櫳’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음. 꽃이 아로새겨진 격자창을 말하는 것으로 본 듯함.

17	권25 題	放後遇恩不霑	제3・4구 東風日本至, 白雉越裳來.	[士贇曰] 東方朔『十洲三島記』漢武帝時月支國使者白"臣國去此三十萬里, 國有常占東風入律, 百旬不休"	李白詩云"東風日本至, 白雉越裳來." 按『十洲記』, "漢武時月氏使者曰, '臣國去此三十萬里, 國有常占東風入律, 百旬不休'"云云. 『三才圖會』, "日本國東北至毛人國界, 東南至東女國界, 南至琉球國界, 西南至福建界, 西北至朝鮮國界, 北至月氏國界, 月氏蓋東北方國也." 但『漢書』, "凶奴破月氏王", 又"張騫使月氏." 『通典』云"大月氏國在大宛西, 又有小月氏國, 皆西域國名." 與此恐不同, 月氏或作月支.	※소사윤 주석을 소개한 뒤, 이수광은 다른 논거를 들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18	권25 題	春夜洛城聞笛	제1・2구/기・승구 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		李白詩曰, "誰家玉笛暗飛聲, 散入春風滿洛城." 唐汝詢言"不見其人而聞其聲, 故曰暗滿洛城, 言其聲之遠也." 按汝詢, 明人, 五歲盲而能强記, 作『唐詩解』, 其曰"不見其人而聞其聲"者, 眞自得之言也.	唐汝詢 및 『唐詩解』 소개와 해당 구절에 대한 당여순 주석의 뛰어남을 언급
19	권5 樂府	淸平調詞三首 其一	전문 雲想衣裳花想容, 春風拂檻露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齊賢曰]「穆天子傳」, 穆天子西登崑崙見王母曰, "登已至於羣玉之上, 先王所謂策府也." 『楚詞」, "望瑤臺之偃蹇兮, 見有娀之佚女." 陸機「前緩聲歌」云, "北欲瑤臺女."	李白「淸平調詞」曰, "雲想衣裳花想容, 春風拂檻露華濃. 若非群玉山頭見, 會向瑤臺月下逢." 按『唐詩解』云, 明皇於武妃薨後, 見雲而想其衣裳, 見花而想其貌, 當春風滴露之際, 哀	唐汝詢 『唐詩解』 주석 소개와 해당 구절에 대한 이수광 자신의 생각 제시. 양제현의 주석 에는 「穆天子傳」, 『초사』 「離騷」, 陸機의 「前緩聲歌」 등을 인용하

					不勝情矣. 若此之女, 非群玉之王母, 卽瑤臺之佚妃, 人間豈易覩乎, 謂未得太眞時也. 余謂此乃贊美貴妃之辭, 想者疑其似也. 言貴妃之衣裳似雲, 容似花而如春露方濃也. 下句比諸仙女, 非人間之所有云爾.	여 표현의 전거만 소개하고 있고 전체 의미에 대한 설명이 없음. *陸機「前緩聲歌」, "北徵瑤臺女"(『文選』 권28)
20	권5 樂府	淸平調詞三首 其二	시 전문 一枝濃艶露凝香, 雲雨巫山枉斷腸. 借問漢宮誰得似, 可憐飛燕倚新粧.	[士贇曰] 傳者謂高力士指摘飛燕之事以激怒貴妃. 予謂使力士而知書, 則雲雨巫山, 豈不尤甚乎, 此云枉斷腸者, 亦譏其曾爲壽王妃, 使壽王而未能忘情, 是枉斷腸矣. 詩人比事以興, 深切著明, 特讀者以爲常事而忽之耳.	李白「淸平詞」日, "一枝濃艶露凝香, 雲雨巫山枉斷腸. 借問漢宮誰得似, 可憐飛燕倚新粧." 唐汝詢云"貴妃容色如花, 覺襄王雲雨之夢, 爲徒勞也." 或者以枉斷腸屬壽王, 恐非李白本意. 又『稗說』云"倚者, 賴也." 謂趙后專寵漢宮, 只賴脂粉耳. 余謂倚猶恃也, 如中詩"依倚將軍勢"之倚, 蓋言其倚恃粧粉而矜夸自得之意, 李詩又日"自倚顔如花", 其義亦同.	※당여순 주석 내용 소개 뒤 이수광 자신의 이해방식 제시. 소사윤의 주석 에서는 "枉斷腸"을 양귀비의 첫 남편 壽王의 일로 봄. 이에 반해 당여순의 주석에서는 수왕의 일로 보는 것이 이백의 본뜻이 아닐 것이라며 소사윤의 주석을 부정함. 이수광은 이 시를 양귀비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말로 봄. *辛延年, 「羽林郎」, 『玉臺新詠』 권1, "依倚將軍勢" **이백, 권5 樂府, 「邯鄲才人嫁爲厮養卒婦」, "自倚顔如花"
21	권11 贈	在水軍宴贈幕府諸侍御(永王	제1・2구 月化五白龍, 翻飛凌九天.		李白詩"月化五白龍, 翻飛上靑天." 未知所謂, 蓋其時謠讖之言. 高麗李百順「漁陽」詩云"只	*『분류보주이태백시』 원문과 차이 있음. 이백 시집 이본 중엔 이런 내용이 보이지

		軍中)			因欲奪鷄頭肉, 豈是爭爲月化龍." 乃出於此. 鷄頭肉, 按太眞中酒, 衣褪微露乳, 帝捫之曰, "軟溫新剝鷄頭肉", 祿山在傍曰, "滑膩[膩?]凝如塞上酥", 亦用此也.	않음. **李百順, **「過漁陽, 次李眉叟韻」(『동문선』 권19 칠언절구)**: "只因欲奪鷄頭肉, 豈是爭爲月化龍."
22	권6 樂府	子夜吳歌 四首 其二	제1・2구 鏡湖三百里, 菡?萏發荷花.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鏡湖三百里, 菡萏發荷花." 蓋謂荷花發於菡也. 按芙蕖其葉爲荷, 其莖爲茄, 其花未發爲菡萏, 已發爲芙蓉, 其實爲蓮, 其根爲藕中爲菂, 菂中有靑爲薏, 芙蕖乃總名.	※이수광 나름의 주석 26조에서도 이 시의 다른 구절을 언급하고 있음
23	권9 贈	贈嵩山焦鍊師	제2구 三花含紫煙	[齊賢曰]『事類』云漢世有道士自外國將貝多子, 於嵩山下種之, 一年三花, 白色香美.	李白「贈嵩山焦鍊師」詩曰, "三花明素烟" 按 "漢時道士自外國將貝多子, 種嵩山下, 一年三花." 邢居實詩"頭巾好掛三花樹", 蓋亦指嵩山而言. 又『仙經』曰, "崑崙山西北有龍池, 上有三花樹," 亦曰"三珠樹"	※이수광이 양제현의 주석을 수용(밑줄 친 부분)하고 예시와 주석을 추가함 *『지봉유설』에서는 "三花明素烟"로 표기되어 『분류보주이태백시』 "三花含紫煙"과 원문에 차이가 있음 **邢居實, 「李伯時畫圖」, "頭巾好掛三花樹"(明 李蓘 編, 『宋藝圃集』 권15)
24	권7 歌吟	橫江詞六首 其五	제3・4구/전・결구 郎今欲渡緣何事, 如此風波不可行.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郎今欲渡緣何事, 如此風波不可行." 余常喜誦之, 然梁簡文帝詩云"郎今欲渡畏風波", 乃知出於此也.	※이수광 나름의 주석 *梁 簡文帝, 「烏棲曲四首」 其一(『樂府詩集』 권48 淸商曲辭

						西曲歌中, "今欲渡畏風波"
25	권3 古樂府	蜀道難	시 전문 噫吁戱, 危乎高哉. 蜀道之難, 難於上靑天. 蠶叢及魚鳧, 開國何茫然. 爾來四萬八千歲, 不與秦塞通人煙. 西當太白有鳥道, 可以橫絶峩眉巓. 地崩山摧壯士死, 然後天梯石棧相鉤連. 上有六龍回日之高標, 下有衝波逆折之回川. 黃鶴之飛尙不得過, 猿猱欲度愁攀援.靑泥何盤盤, 百步九折縈巖巒. 捫參歷井仰脅息, 以手撫膺坐長嘆. 問君西遊何時還, 畏途巉巖不可攀. 但見悲鳥號古木, 雄飛從雌繞林間. 又聞子規啼夜月, 愁空山. 蜀道之難, 難於上靑天, 使人聽此凋朱顔. 連峯去天不盈尺, 枯松倒掛倚絶壁.	○士贊箋事已[記]有客曰, "『洪駒父詩話』云, 『新唐書』「嚴武傳」曰, 武在蜀放肆, 房琯以故宰相爲巡內刺史, 武踞[倨]慢不爲禮. 最厚杜甫, 然欲殺甫數矣. 李白作「蜀道難」者, 乃爲房與杜危之也. 『新唐書』據范據「雲溪友議」言之耳. 按『唐摭言』載, 李白始自西蜀至京, 道未甚振, 因以所業贄謁賀知章. 知章覽「蜀道難」一篇, 曰, '子謫仙人也.' 按白本傳, 天寶初, 因吳筠被召, 亦至長安, 時往見賀知章, 則與嚴武帥蜀, 歲月懸遠. 嘗見『李集』一本於「蜀道難」題下注[註], 諷章仇兼瓊也. 考其年月, 近之矣. 謂危房・杜者, 非也, 『新唐書』第弗深考耳. 沈存中『筆談』云, 前史稱嚴武爲劍南節度不法, 李白爲作「蜀道難」. 按孟棨所記, 白初至京師, 賀知章聞名, 首詣之. 白出「蜀道難」,	李白「蜀道難」, 『唐詩解』以爲玄宗幸蜀, 太白作此詩, 首言蜀道之難, 非天子所宜幸, 末言蜀中險惡, 非王者所宜居, 蓋欲乘輿速返耳. 余謂此言似得, 按李白「劍閣賦」, 曰"送佳人兮此去, 復何時兮歸來. 望夫君兮安極, 我沈吟兮歎息." 亦此意也。本註所云"爲子美在蜀而作"者, 恐非是.	이 시에 대해서는 中唐 이후 창작배경에 대한 다양한 설이 제기된 바 있음. ※이수광은 唐汝詢의 『唐詩解』를 근거로 소사윤 주석에서 제시한 일설의 오류를 비판함. *여기서 本註는 대체로 소사윤의 주석 내용 중 첫 번째 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양제현은 시 전반에 대한 주석을 별도로 남기고 있지 않음. 소사윤의 주석에는 이 시의 창작 배경과 의도에 관한 여러 가지 설과 자신의 생각을 객과 나의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음. **다만 소사윤의 주석 내용 중에도 두보가 촉 땅에서 엄무의 일로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읊

			飛湍瀑流爭喧豗, 砯厓轉石萬壑雷. 其險也如此, 嗟爾遠道之人胡爲乎來哉. 劍閣崢嶸而崔嵬, 一夫當關, 萬夫莫開. 所守或匪親, 化爲狼與豺. 朝避猛虎, 夕避長蛇. 磨牙吮血, 殺人如麻. 錦城雖云樂, 不如早還家. 蜀道之難難於上靑天, 側身西望長咨嗟.	時乃天寶初也. 嚴武爲劒南, 在至德已後肅宗時, 年代甚遠. 蓋[盖]小說所記, 率多舛誤. 今子以何說爲是乎?" 予曰, "以臆斷之, 其說皆非也. 史不足徵, 小說傳記反足信乎? 所謂嘗見『李集』一本於「蜀道難」下注[註], 諷章仇兼瓊者, 山谷黃魯直嘗於宜州用三錢買雞毛筆, 爲周惟深作草書「蜀道難」, 亦於題下註云諷章仇兼瓊也. 然天寶初, 天下乂安, 四郊無警, 劍閣乃長安入蜀之道, 太白非狂者, 乃拳拳然欲嚴劍閣之守, 不知將何所拒乎? 以此知其不爲章仇兼瓊也. 嘗[當]以全篇詩意與唐史參考之, 蓋太白初聞祿山亂華, 天子幸蜀時作也. 若曰爲房琯·杜甫·章仇兼瓊而作, 何至始引蠶叢開國, 終言劍閣之險, 復及所守匪親·化爲豺狼等語哉? 引喩[踰]非倫, 是以知其不爲章與房·杜也. 唐史, 哥舒翰兵敗, 潼關不守, 楊國忠首倡幸蜀之策, 當時臣庶皆非		었다는 설이 근거 없음을 지적한 바 있음. 따라서 이수광의 지적은 소사윤 주석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소사윤이 제시한 설 중의 하나를 비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소사윤 주석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음에도 『당시해』의 해석을 취한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음. ***한편 명대 胡震亨은 현종이 안록산의 난을 피하여 촉 땅에 간 것이 잘못된 일임을 풍자하였다는 설명은 소사윤 주석의 말이라고 지적하였음. 이는 후일 이 시에 대한 소사윤의 새로운 해석으로 평가됨. ※조선 간본 중 전기 초주갑인자본과 후기 훈련도감자본 사이에 글자 차이가 발견됨. [ ]은 훈련도감자본의 내용으로, 이런 차이들은 훈련도감자

			之. 馬嵬父老遮道諫日, '宮闕陛下家居, 陵寢陛下墳墓, 今捨此欲何之?' 又告太子日, '若殿下與至尊皆入蜀, 中原百姓誰爲主?' 建寧王倓亦日, '今殿下從至尊入蜀, 若賊兵燒絶棧道, 則中原之地, 拱手授賊.' 旣上至扶風, 士卒潛懷去就, 往往[流]言不遜. 比至成都, 從官及六軍至者, 千三百人而已. 太白此時蓋亦深知幸蜀之非計, 欲言則不在其位, 不言則愛君憂國之情, 不能自已, 故作詩以達意也. 詩日, '噫吁嚱, 危乎高哉. 蜀道之難, 難于上靑天.' 極路險難之形容, 言當時欲從君于難者, 至蜀之難如上天之難也. '蠶叢及魚鳧, 開國何茫[茫/莊]然. 爾來四萬八千歲, 不與秦塞通人煙.' 言蠶爾之蜀, 僻在一隅, 自古聲教所不暨. 雖秦塞之近, 且不相通, 非可爲中國帝王之都也. '西當太白有鳥道, 可以橫絶峩眉巓.' 言五丁未開道之前, 惟長安	본의 교정 상 문제로 보이지만 초주갑인자본을 그대로 찍은 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음.

正西太白山, 僅有鳥道
可以橫絶峩眉之巓,
非人迹所可往來也.
'地崩山摧壯士死, 然
後天梯石棧相鉤連.'
言五丁旣開道之後, 梯
棧相連, 始與秦通. 今
焉安處于蜀, 設若燒絶
棧道, 則中原道斷矣.
'上有六龍回日之高標,
下有衝波逆折之回川.'
言其險上際于天, 下極
于地也. '黃鶴之飛尙
不得過, 猿猴欲度愁攀
援.'者, 言鳥獸猶憚其
險, 人其可知也. '靑泥
何盤盤, 百步九折縈巖
巒.'者, 歷言蜀道險難
之所也. '捫參歷井仰
脅息, 以手撫膺坐長
嘆.' 參與井爲蜀分野,
捫參歷井, 言環蜀之
境, 道里險難, 所在皆
然, 令人脅斂屛氣而
息, 惟有撫膺長歎而已
也. '問君西遊何時還'
者, 君字非泛然而言,
猶杜子美「北征」詩'恐
君有遺失'及'君誠中興
主'之義. 所謂君字明
皇也, 西遊者西華也,
何時還者, 言旣幸蜀
矣, 何時可還中原而爲
生靈之主也. '畏途巉

				巖不可攀', 此兩句, 乃太白興歎發問之辭, 言君旣幸蜀矣, 何時可還而畏途如此, 忠臣義士雖欲從君於難, 道路險阻, 不可以猝然攀附也. 史曰, 上至成都, 從官六軍近千三百人, 此其驗矣. '但見悲烏號古木, 雄飛雌從繞林間. 又聞子規啼夜月, 愁空山.'者, 言朝夕之間, 空山叢木, 惟有禽鳥飛鳴, 則人迹之稀少從可知也. 復申之曰, '蜀道之難, 難于上靑天.', 靑天者, 言其險之極, 一言之不足, 再言之也. '使人聽此凋朱顔'者, 此乃太白自述, 聞涉險之時, 欲攀從而不可徒, 感傷於心, 而形諸顔色也. '連峯去天不盈尺, 枯松倒挂倚絶壁. 飛湍瀑流爭喧豗, 砯崖轉石萬壑雷. 其險也如此'者, 備言蜀道險難之狀, '嗟爾遠道之人胡爲乎來哉!'者, 嗟字, 內發嘆之音, 遠道之人, 以喩踈遠之臣, 言蜀道之險如此, 若白之踈遠, 雖欲從君於難, 胡爲而能	

來也. ‘劍閣崢嶸而崔嵬, 一夫當關, 萬人莫開. 所守或匪親, 化爲狼與豺.’者, 言赞帝幸蜀者, 不過謂有劍閣之險而已. 然守關者任非其人, 如豺狼之反噬, 此則尤可憂也. ‘朝避猛虎, 夕避長蛇, 磨牙吮血, 殺人如麻.’, 言蜀與羌夷雜處, 如虎如蛇, 朝夕皆當避之. 其或變生肘腋, 是又可憂之大者也. ‘錦城雖云樂, 不如早還家.’者, 語意蓋[盖]自『楚辭』「招魂」中來, 言蜀都之樂, 不如早還中國之樂也. 復申之日, ‘蜀道之難, 難于上靑天, 側身西望長咨嗟.’者, 再言之不足, 故三言之, 反覆再三, 謂從君于難者, 至蜀之難, 眞如上天之難矣. 夫如是, 則白也側身無所西望吾君, 惟有長嘆咨嗟以致吾瞻戀之意云耳, 吁詩意亦微而顯者歟.” 客曰, “是則然矣, 「上皇西巡南京歌」胡爲而作邪?” 予曰, “「蜀道難」是初聞上皇倉卒幸蜀之時, 見得事理不便者

				如此, 情發於中, 不能已於言也.「西巡南京歌」是事已定之時, 代人致頌之詞也, 成事不說, 遂事不諫, 朝廷處分已定, 太白不在其位, 可復更爲異議乎?" 客又曰, "太白爲宋中丞撰「請都金陵表」, 胡爲稱美蜀都, 欲使上皇安居之邪?" 予曰, "此亦代人之作也. 操辭者, 太白也, 命意者, 宋中丞也. 太白方依于中丞, 敢不從中丞之意而自爲異論乎? 此又不待辨而自明者也." 客語塞曰, "予不能辯之矣, 質諸後來之謫仙, 斯可矣."		
26	권6 樂府	子夜吳歌 四首 其二	五月西施採, 人看隘若耶.		白詩曰, "五月西施採, 人看隘若耶." 蓋五月是採蓮之時也. 白光勳詞云"江南採蓮女, 江水拍山流. 蓮短不出水, 櫂歌春正愁." 蓋蓮未出水則非採蓮之時, 可謂謬矣.	이백 시로 백광훈 사의 오류 지적 *白光勳,『玉峯詩集』上 五言絶句,「江南詞」, "江南採蓮女, 江水拍山流. 蓮短未出水, 櫂歌春玫愁."
27	미수록	戲贈杜甫	제3구/전구 借問別來太瘦生 (唐 孟棨 撰,『本事詩』高逸第三; 宋 歐陽修 撰,『六一詩話』; 宋 洪邁 編,『萬首唐人絶句』권59; 宋 朱		虞世南詩"垂肩擘袖大憨生", 李白詩"爲問如何太瘦生", 只爲從前作詩苦. 劉滄詩"月高風定苦吟生", 按崔浩愛吟詠, "一日病起", 友人戲曰"子非病, 乃苦吟詩瘦.", 蓋用此也. 生字,	'生'字의 용례로 이백 시구 인용. *虞世南,「應詔嘲司花女」(『古詩紀』권134 隋第5), "垂肩擘袖大憨生" **劉滄,「寓居寄友人」(『唐詩品彙』권8

			勝非 撰,『紺珠集』卷九 古今詩話「太瘦生」; 宋 胡仔 撰,『漁隱叢話』後集권8 杜子美四; **淸 王琦 撰,『李太白集注』권30 詩文拾遺** 등 수록		語錄如好生怎生甚生之類, 佛家言太俗生可憐生, 亦同義.	8 七言律詩7 正變), "月高風定苦吟生" ***『古今事文類聚』別集권9 文章部「苦吟而瘦」, "崔浩愛吟詠, 一日病起, 友人戲之曰, 非子病如此, 乃子苦吟詩瘦, 後遂爲口實."
28	권20 遊宴	遊南陽淸泠泉	마지막 두 구 空歌望雲月, 曲盡長松聲.	[士贇曰]道家「步虛詞」, 有碧落空歌.	李白詩曰"空歌望雲月, 曲盡長松聲." 註,「步虛詞」, 有碧落空歌. 按唐人詩中多用之, 如"空歌迥易分", "紫府空歌碧落寒" 蓋猶言空中之樂也.	소사윤 주석 인용 후 부연 설명 "空歌迥易分"(盧照隣,「贈李榮道士」,『文苑英華』권227) "紫府空歌碧落寒" (李羣玉,「紫極宮齋後」,『萬首唐人絶句』)
29	권4 樂府 권8 歌吟	司馬將軍歌 永王東巡歌十一首 其八	제1・2구 狂風吹古月, 竊弄章華臺. 承句/제2구 海動山傾古月摧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云"狂風吹古月, 竊弄章華臺." 又"海動山傾古月摧", 古月, 未詳出處, 或謂胡之破字云. 按『晉書』劉聰記曰"月爲胡王", 又「符堅記」曰"讖云, 古月之末, 亂中州."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에 없는 내용으로, 이수광의 독자적인 주석임. *『晉書』권102, 載記第二 劉聰 **『晉書』권114, 載記第十四 苻堅下
30	권25 閨情	別內赴徵三首 其二	시 전문 出門妻子强牽衣, 問我西行幾日歸. 來時儻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 (淸 王琦 撰,『李太白集注』 권25, "莫見蘇秦不下		李白詩曰, "出門妻子强牽衣, 問我西行幾日歸. 來時倘佩黃金印, 莫學蘇秦不下機." 按不下機, 乃蘇秦妻事, 直謂蘇秦不下機則未穩.	※이수광의 이백 시 원문의 문제에 대한 지적. 그가 비판한 이백 시 표현의 오류는『分類補注李太白詩』수록 내용의 문제이기도 함. '學'자가 아니라 '見'자로

			機."			되어 있을 경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됨.
31	권21 登覽	望廬山瀑布水二首 其一 其二	제8구 初驚河漢(一作銀河)落 마지막 구 疑是銀河落半天		李白「廬山瀑布」詩曰"初驚銀漢落", 又曰"疑是銀河落九天", 蓋善形容矣. 陳摶詩曰"銀河瀉落翠光冷", 石曼卿詩"玉虹垂地色, 銀漢落天聲", 皆襲李詩也. 我朝鄭順朋有「朴淵瀑布」詩云"長恨當年李謫仙, 一生廬嶽眼終偏. 瓊詞錯譬銀河落, 更把何言賦朴淵.", 車天輅詩云"晴虹倒掛潭心黑, 白練斜分石骨靑." 雖不用銀河二字, 而晴虹白練, 亦古語也.	『분류보주이태백시』의 내용과 차이가 있음. 이수광이 진박과 석연년의 시를 이백 시를 이어받은 작품으로 예를 든 것은 『고금사문유취』의 영향도 있음. ※이수광의 시기에는 『분류보주이태백시』 외의 다른 이본이나 다른 종류의 이백 시 수록문헌이 활용되었음이 확실함. 하지만 "初驚銀漢落"이라고 된 이본은 현재 확인되지지 않음 *陳摶, 「題名水澗」(宋 祝穆 撰, 『古今事文類聚』 前集 권18 地理部 泉), "銀河瀉落翠光冷" **石曼卿, 「瀑布(『古今事文類聚』 前集 권18 地理部 泉), "玉虹垂地色, 銀漢落天聲" ***차천로 시 제목 미상
32	권2 古風	古風(59수) 중 其十八	제9・10구 鷄鳴海色動, 謁帝羅公侯.	[齊賢曰]海色, 曉色也. 雞鳴之時, 天色昧明, 如海氣朦朧然, 毛詩,	李白詩曰"鷄鳴海色動, 謁帝羅公侯." 註, 海色, 曉色也. 一日海色日出	※이수광이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을 수용한 뒤 이반룡의 시

				“雞既鳴矣, 朝既盈矣.” [士贇曰] 海色, 日出之光.	之光也. 李攀龍詩“海色秋高日觀峯”是也.	를 예시로 들어 이를 증명하고 있음 *毛詩, “雞既鳴矣, 朝既盈矣.”(齊風「鷄鳴」) **李攀龍, “海色秋高日觀峯”(『滄溟集』 권8 七言律詩, 「同元美與子相公實分賦懷太山得鐘字東順甫」)
33	권4 樂府	妾薄命	제13・14구 昔日芙蓉花, 今成斷腸草.	[齊賢曰]王逸註楚辭, “芙蓉, 蓮華也.”	李白「妾薄命」詩日, “昔日芙蓉花, 今成斷腸草.”, 按斷腸草, 其花美好, 名芙蓉, 其根不可食, 食之斷腸.	※이수광 나름의 주석
34	권7 歌吟	襄陽歌	제20구 鳳笙龍管行相催		李白詩“鳳笙龍管行相催”, 按『列仙傳』, 周王子喬好吹笙作鳳鳴, 古文云“聞鳳吹於洛浦”, 唐詩云“鳳吹聲如隔彩霞”, 皆謂笙也. 李詩又日“雙吹紫鸞笙”, 蓋以鳳爲鸞耳. 又『列仙傳, 蕭史善吹簫作鳳鳴, 後與弄玉隨鳳飛去, 故日鳳簫. 然則許渾「縠山廟」詩日“玉簫凊轉鶴徘徊”, 又日“縠山住近吹簫廟”, 此簫字恐謬用矣.	*孔稚珪, 「北山移文」(『文選』 卷四十三 書下), “聞鳳吹於洛浦” **郎士元, 「聽鄰家吹笙」(『唐詩品彙』 권50七言絶句五 接武上之二), “鳳吹聲如隔彩霞” ***許渾, 『丁卯詩集』 卷上 近體詩 七言絶句, 「縠山廟」, “玉簫清轉鶴徘徊”; 許渾, 『丁卯詩集』 卷上 近體詩 七言律詩, “縠山住近吹笙廟”
35	권16 送	送王屋山人魏	후반부/ 끝에서 제7・8구	관련 주석 없음	李白詩“東窓綠玉樹, 定長三五枝.” 又日“手持	※이수광 나름의 주석

	권14 寄	萬還王屋(并序) 盧山謠寄盧侍御虛舟	東牕(片+忽)綠玉樹, 定長三五枝. 제3구 手持綠玉杖		綠玉杖", 按「西都賦」, "珊瑚碧樹周阿而生", 『淮南子』日"崑崙山有碧玉樹"是也. 王貞白詩日"露香紅玉樹", 亦有所據耶.	*班固, 「西都賦」"珊瑚碧樹周阿而生"(『文選』 권1 京都上) **王貞白, 「遊仙」, "露香紅玉樹"(『唐詩品彙』 권69 五言律詩十四 餘響)
36	권6 樂府	綠水曲	제1구 綠水明秋月	[齊賢日]馬融「長笛賦」, "中取度於白雪綠水", 注, 二曲名. 嵇康「琴賦」云, "初涉綠水中奏清徵", 張翰「弔賈生賦」, "敢不敬弔, 寄之綠水", 『淮南子』"手會綠水之趣", 高誘日"古詩也" [士贇日]『樂府解題』, 綠水者, 古琴操名. 『淮南子』"手會綠水之趣"	李白「綠水曲」詩日, "綠水明秋月", 按"綠水古琴操名, 『淮南子』云'手會綠水之趣', 嵇康「琴賦」云, '初涉綠水'", 沈佺期詩云"歌聲隨綠水"是也.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을 수용한 뒤 관련 용례를 보완하여 제시함. *嵇康, 「琴賦」"初涉綠水中奏清徵" **이수광이 沈佺期의 시("歌聲隨綠水")라고 예를 든 것은 『唐詩品彙』(권16 五言古詩 羽翼上)에는 劉眘虛, 「江南曲」 중 한 구절로 실려 있음. "美人何蕩漾, 湖上風日長. 玉手欲有贈, 裴徊雙明璫. 歌聲隨綠水, 怨氣起清揚. 日暮還家望, 雲波橫洞房."
37	권25 題	題東谿公幽居	頷聯의 出句/제3구 宅近青山同謝朓	[齊賢日]「太白傳」日"晚好黃老, 渡牛渚磯, 至姑熟, 悅謝家青山, 欲居焉."故云"宅近青山". [士贇日] 青山在當塗縣南三十里, 『寰宇記』	李白詩"宅近青山同謝朓", 按『堯山堂外紀』, "謝朓愛青山之勝, 築室山南." 青山, 乃山名也. 又日"李白至牛渚磯, 愛謝家青山, 欲終焉. 及卒, 遂葬山麓此也."	※青山이 산 이름이란 주석은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을 수용한 것이지만 논거에 차이가 있음. *『堯山堂外紀』를 인용한 내용은 이수광

				“齊宣城太守謝朓, 築室於山南.”		이 추가한 내용임
38	권22 懷古	蘇武	제3・4구 白鴈上林飛, 空傳一書札.	관련 주석 없음. 다만 관련 주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음. [齊賢曰]後昭帝即位數年, 與匈奴和親, 求武等, 謂單于, 言天子射上林中, 得鴈, 足有繫帛書, 言武等在某澤中. 單于驚謝有之.	李白詩曰, “白鴈上林飛, 空傳一書札.”, 按『說郛』云“北方有白鴈, 秋深則來, 謂之霜信.” 杜詩“故國霜前白鴈來”是矣, 蓋謂鴈來而書信不傳也.	※이수광 나름의 주석 *杜甫, 「九日五首」 其一(『集千家註杜工部詩集』 권17), 舊國霜前白雁來 宋 沈括 撰, 『夢溪筆談』 권24 雜誌一; 宋 阮閱 撰, 『詩話總龜』 권27 書事門, “故國霜前白鴈來”
39	미수록		天子呼來不上船		“天子呼來不上船”, 乃李白實事, 所謂“龍舟移棹晚”此也. 『古文大全』註, “以衣紐爲船.”, 『冷齋夜話』亦云“襟紐, 是也.” 可笑.	※이수광 나름의 주석 *杜甫, 「飮中八仙歌」, “天子呼來不上船” **杜甫, 「寄李十二白二十韻」, “龍舟移棹晚”

이상 분석 결과에서 드러나듯 『지봉유설』에서도 『오산설림』과 마찬가지로 『분류보주이태백시』가 이백 시 이해의 준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수광 역시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이 이백 시 이해에 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번 제6조에서 「別東林寺僧」의 전・결구 “웃으며 여산의 혜원 스님과 헤어지는데, 어찌 번거롭게 호계를 건너시는가?笑別廬山遠, 何煩過虎溪.”의 ‘惠遠’과 ‘虎溪’, 제13조에서 「春歸終南山松龍舊隱」의 마지막 구절 “홀로 마시며 긴 밤에 도취해보네獨酌陶永夕”의 ‘陶’, 제14조에서 「夜泛洞庭尋裴侍御清酌」 제7・8구 “금을 안고 깊은 대숲에서 나와, 나를 위해 「곤계」를 연주하네抱琴出深竹, 爲我彈鵾鷄.”의 ‘鵾鷄’에 대한 양제현의 주석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제14조의 경우 양제현은 ‘鵾鷄’를 曲名 혹은 古琵琶絃(鵾鷄

58) 張佩, 앞의 책, 251면.

筋)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석하였는데, 이수광은 庾信의 「春日離合二首」 其二, 左思의 「蜀都賦」, 이백의 「金陵鳳凰臺置酒」 등을 근거로 삼아 두 가지 중 후자의 주석이 맞다고 변증하였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이수광은 『분류보주이백시』 주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 양상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제현 혹은 소사윤의 주석을 수용하되 추가 예시를 들거나 다른 전거를 들어 고증에 활용한 경우가 있다. 제1, 3, 5, 9, 15, 23, 28, 32, 36, 37조 등이 그런 예다. 예컨대 제15조에선 「妾薄命」의 제9구 "비는 떨어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없고雨落不上天"에 대한 소사윤의 주석을 수용한 뒤 王粲의 "이별은 비와 같네一別如雨"(「贈蔡子篤詩」)과 이에 대한 呂延濟의 주석("如雨之降不還雲中也."), 그리고 獨孤及의 "어느새 이별하게 되었네荏苒成雨別"(「海上寄蕭五」)를 추가하여 시구를 해설하고 있다. 또한 제32조에선 「古風(59수)」 其十八의 제9・10구 "닭울음 소리에 새벽빛이 일렁이니, 황제를 알현하러 공후들이 늘어섰네鷄鳴海色動, 謁帝羅公侯."의 '海色'에 대한 양제현과 소사윤의 주석을 모두 수용한 뒤, 李攀龍의 시구 "海色秋高日觀峯"(『滄溟集』 권8 七言律詩, 「同元美與子相公實分賦懷太山得鐘字東順甫」)를 들어 이를 설명하였다.

둘째 양제현 혹은 소사윤 주석의 오류를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경우가 있다. 제2, 16, 17, 20, 25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제2조에선 「尋雍尊師隱居」의 경련 "꽃이 따뜻하여 푸른 소가 누워있고, 소나무 높아 흰 학이 자고 있네花暖青牛臥, 松高白鶴眠."의 '青牛'에 대한 양제현의 주석 오류를 지적하였다. 양제현이 '청우'를 달팽이[蝸牛]같이 양쪽 뿔이 있는 꽃잎 위의 푸른 벌레라고 본 것에 대해 이수광은 이를 老子의 일화를 用事한 것으로 于鵠의 「贈王尊師」시의 "푸른 소는 나무 그늘에서 잠들고, 흰 개는 원숭이 소리에 짖네青牛眠樹影, 白犬吠猿聲."도 이런 뜻으로 쓰였다고 용례를 덧붙였다. 양제현의 주석 내용은 청대 王琦의 『李太白集注』에도 그대로 전재되어 있는 만큼, 이는 이수광의 선구적이고 독자적인 주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제16조에선 「怨歌行」의 제13・14구 "숙상 갖옷은 좋은 술과 바꿨고, 춤옷에 용무늬 수놓는 일도 그만두었지鸜鵒換美酒, 舞衣罷雕龍."에 대한 소사윤의 주석을 소개한 뒤(雕龍

은 舞衣에 아로새겨진 龍文을 말한다), 이 시는 東韻인데 운자의 通押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의 원문도 "舞衣罷雕龍"이 될 수 없고 "춤옷도 꽃무늬 새겨진 창가에서 만들길 그만두었지舞衣罷雕櫳"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雕龍'에 꿰어맞춘 소사윤의 주석 역시 억지스럽다고 비판하였다.

셋째 『분류보주이태백시』에 주석이 없는 부분에 대해 이수광 자신의 주석을 추가하거나 시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한 경우가 있다. 제7, 8, 12, 29, 33, 35, 38조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제7조에선 「哭晁卿行」 시에 대해 『분류보주이태백시』엔 소사윤의 간략한 주석 외에 시의 창작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수광은 '밝은 달이 돌아가지 못하고 푸른바다에 빠지니明月不歸沈碧海'라는 구절을 일본사신 晁卿이 익사했을 것이라 추정한 뒤, 『唐書』의 관련 기사를 인용하여 晁卿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59] 또한 제29조에선 「司馬將軍歌」의 "사나운 바람이 옛달에 몰아쳐, 장화대를 농락하네.狂風吹古月, 竊弄章華臺."와 「永王東巡歌十一首」 其八의 "바다를 움직이고 산을 기울이니 옛달이 꺾어지네海動山傾古月摧"의 '古月'을 『晉書』의 용례를 들어 '胡'자의 破字로 보았다.[60]

이상 사례들은 이수광의 『지봉유설』이 辨證에 치우친 시화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궤를 같이 한다.[61] 그런데 해외 중국문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예로 든 제2조의 주석 같은 사례들은 중국 역대의 유명 주석가 내지 근대의 각종 이백시 주석본들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만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 이런 특성은 앞서 논의한 차천로의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62]

그럼에도 이수광의 이백 시 이해에 주요 기반이 된 것은 여전히 『분류보주이태백시』였다고 볼 수 있다. **제22, 24, 29, 30, 33 등 이수광 나름의 주**

---

59) "**細味此詩, '明月不歸沈碧海'云, 則疑晁卿溺海不返耳.** 按晁卿卽朝臣, 『**唐書』長安元年,** 日本遣朝臣貢方物, 朝臣好學能屬文, 請從諸儒授經, 拜司膳員外郎云. 王維亦有「送晁監還日本」律詩及序, 蓋職爲卿監, 故曰晁卿晁監." 조경의 정확한 이름은 미상인데, 晁行・晁衡・朝衡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60) "**古月, 未詳出處, 或謂胡之破字云.** 按『晉書』劉聰記曰'月爲胡王', 又「符堅記」曰'讖云, 古月之末, 亂中州.'"

61) 박수천, 앞의 책, 18면. 박수천은 『지봉유설』의 특징으로 변증류 기사의 방대함을 들고 있다.

62) 鄭健行 등은 이수광 『지봉유설』의 시평 부분을 논석의 대표 사례로 꼽은 바 있다. 鄭健行・陳永明・吳淑鈿, 이장우・박한규・최계량 역주, 앞의 책, 35-48면;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권23, 1350-1351면.

석들마저도 『분류보주이태백시』의 주석들을 준거로 삼아 고민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제30조의 경우 앞서 언급한 「別內赴徵三首」 其二의 "莫學蘇秦不下機."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63) 이는 사실 『分類補注李太白詩』 수록 내용의 문제이기도 하다. '學'자가 아니라 '見'자로 되어 있는 이본의 경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이다. 『분류보주이태백시』를 저본으로 했지만, 후대인 청대 王琦 注의 『李太白全集』에서는 "소진을 보고도 베틀에서 내려오지 않는 짓은 하지 말게나莫見蘇秦不下機."라고 바로잡기도 했다.64)

이수광의 이백 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식에는 唐汝詢의 『唐詩解』가 직접적인 자극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0, 18, 19, 20조 등이 그런 예다. 이수광은 제18조에서 당여순이 5세 이후 소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백 시 辨正 과정에서 언급할 만큼 당여순이란 인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그의 주석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수광 시대에 이르러 이백 시 이해에 『분류보주이태백시』만이 아니라 『당시해』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이 시기 중국 문헌 수용 양상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분류보주이태백시』 일변도의 이백 시 이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는 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 앞서 언급한 차천로와 이수광의 시평류 저술에서도 두드러지는 이런 경향은 조선 중기 지식인들이 『분류보주이태백시』 주석에 대한 난숙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백 시 이해를 시도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차천로와 이수광의 시기에는 『분류보주이태백시』 외의 이백시집 이본이나 이백 시 수록 문헌 역시 다양하게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만 제31조 "初驚銀漢落"(「望廬山瀑布水二首」 其一)처럼 출처 문헌이 확인되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의 추적이 필요하다.65)

---

63) "按不下機, 乃蘇秦妻事, 直謂蘇秦不下機則未穩."
64) 王琦 注, 『李太白全集』 권25, 1187면;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권25, 1488-1489면;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七, 第24卷, 天津: 白花文藝出版社, 1996, 3710-3715면.
65) 『분류보주이태백시』 권21 登覽에는 "初驚**河漢**(一作銀河)落"이라고 되어 있다.

6. 남는 문제

차천로와 이수광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양제현과 소사윤(사윤) 주석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대표적으로 李瀷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성호사설』詩文門에서 이백의「白頭吟」등을 예로 들어 두 사람 주석의 한계를 지적하였다.[66] 하지만 조선 후기 들어 명나라 許自昌의 校刻/刊本(1602년경,『李杜全集』)에서 주석을 빼고 시 본문만을 실어 책을 간행하였고, 명 胡震亨의『李詩通』, 淸 王琦의『李太白集注』(국립중앙도서관 연대 미상 필사본 소장) 등도 직간접으로 유입됨으로써『분류보주이태백시』의 수용 방식도 이전과는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지면의 제약으로 후기의 양상은 별고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필자는 조선 간본『분류보주이태백시』의 검토 과정에서 판본 계통에 대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 여섯 차례 간행된『분류보주이태백시』가 마지막의 整理字體 외에는 모두 같은 판본이라고 알고 있다.[67] 하지만, 검토 결과 최소한 초주갑인자본과 훈련도감자본은 같은 판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완질로 비교적 책 상태가 좋은 버클리대학 아사미문고 소장본(초주갑인자 번각본)의 경우 두 가지 이상의 판본이 뒤섞여 있음도 발견되었다. 이것이 버클리대학 소장본만의 특성인지 아니면 번각본 자체의 補刻 과정에 수반된 變改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앞으로 관련 문헌에 대한 정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이 문제 역시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68]

66)『성호사설』제29권 詩文門,「白頭吟」

67) 황선주,「韓國本『李太白文集』의 版本 問題」,「韓搆字本『李適仙七言古詩』의 刊行 經緯」, 앞의 책, 37-51・290-306면 등.

68)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世宗 29년(1447) 간행된『唐翰林李太白文集』과 같은『분류보주이태백시』외의 이태백시집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필자 역시 심사자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唐翰林李太白文集』의 수용 양상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도 함께 밝혀둔다.『唐翰林李太白文集』에 관해선 김학주,『조선시대 한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0, 2-10면; 이종묵,『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서울대출판문화연구원, 202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鄭健行・陳永明・吳淑鈿,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 北京: 中華書局, 2002.(『우리나라 선비들의 中國시 이야기』, 이장우・박한규・최계량 역주, 영남대출판부, 2012.)

瞿蛻園・朱金城 校注, 『李白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唐汝詢, 『唐詩解』, 王振漢 點校,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2001.

楊齊賢 集註, 蕭士贇 補註, 『元本分類補注李太白詩』, 北京: 國家圖書館出版社, 2017.

_____, 『分類補注李太白詩』, 甲寅字, 고려대 소장본.

_____, 『分類補注李太白詩』, 木板本(訓監字),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서관 소장본,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목판본, 고려대 소장본 등.

王琦 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李睟光, 『芝峰類說』, 景仁文化社, 1970.

이영주・임도현・신하윤 역주, 『이태백 시집』, 학고방, 2015.

詹鍈 主編,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天津: 白花文藝出版社, 1996.

김덕수, 「『희락당고』 소재 한시 주석 연구」,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150-181면.

김학주, 『조선시대 한행 중국문학 관계서 연구』, 서울대출판부, 2000, 2-10면.

박수천, 『芝峯類說 文章部의 批評樣相 硏究』, 태학사, 1995.

芳村弘道, 「元版系統の『分類補註李太白詩』について」, 『學林』 第14・15號, 京都: 中國藝文硏究會, 1990, 102-125면.(「關于元版系統的《分類補注李太白詩》」, 劉崇德 譯, 中國李白硏究會 編, 『中國李白硏究』 1992-1993年集, 合肥: 黃山書社, 1992・1993, 353-380면.)

_____, 「元版『分類補註李太白詩』と蕭士贇」, 『日本中國學會報』 第42集, 日本中國學會, 1990, 197-211면.

심경호, 『조선시대 漢文學과 詩經論』, 일지사, 1999, 329면.

이종묵, 『조선에 전해진 중국 문헌』, 서울대출판문화연구원, 2021.

李昌龍, 「韓中詩의 比較文學的硏究—李白・杜甫에 대한 受容樣相—」, 일지사, 1984.

임준철, 「車天輅 詩에서의 李白 詩 '鼇' 意象의 受容과 變奏」, 『비교문학』 38, 한국비교문학회, 2006, 5-36면.

_____, 「『風騷軌範』의 『分類補註李太白詩』 수용과 재분류」, 『한문학논집』 58, 근역한문학회, 2021, 303-351면.

張佩, 『楊齊賢・蕭士贇《分類補注李太白詩》版本系統硏究』, 北京: 首都師範大學出版社, 2015, 1-368면.

詹鍈, 「《李白集》板本源流考」, 『李白全集校註彙釋集評』, 詹鍈 主編, 南京: 白花文藝出版社, 1996, 4537-4672면.

胡振龍, 「讀李白集古注本札記」, 『文獻』 2007年 第3期, 北京: 國家圖書館, 2007, 24면.

韓繼鎬, 「필사본'李白七言'의 注釋과 諺解 양상」, 『열상고전연구』 24, 열상고전연구회, 2006, 39-73면.

허경진, 「한국에서 이백 시가 언해된 배경에 대하여」, 『동방학지』 128, 연세대 국학연구원, 2004, 311-337면.

황선주, 「韓國本『李太白文集』의 版本 問題」, 「韓搆字本 『李適仙七言古詩』의 刊行 經緯」, 『韓國의

中國文獻學을 위하여』, 지샘, 2015, 37-51・290-306면.
黃永武, 『敦煌的唐詩』, 臺北: 洪範書店, 1987, 41-42면.

【Abstract】

Acceptance of『分類補注李太白詩』in the Joseon Dynasty(Ⅰ)
—Focusing on Early to Mid-Joseon—

Lim, Jun-Chul*

This article examines how "Classified and Annotated Poems of Li Taibai(CAPL: 分類補注李太白詩)", the earliest commentary that is currently in existence, was accepted in the early and mid-Joseon period. This is a part of the study on the acceptance of Li Bai(李白)'s poetry in Korea. Li Bai is one of the writers who had a great influence on our Sino-Korean literature, but it has not been specifically verified through what books individual writers accepted.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four conclusions were reached by approaching this issue,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CAPL", which had a great influence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First, I reviewed several editions of works that differ in the content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ents of "CAPL" were mainly accepted until the mid-Joseon Dynasty. It proves that this book served as a major criterion for the understanding of Li Bai to the lierati in Joseon Dynasty.

Seco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series of editions that differ from "CAPL" were introduced. The poem Kim Anro (金安老) quotated to annotate " Heelakdanggo (希樂堂稿)" is different from the various other editions present until now.

Third, it was confirmed that "CAPL" set the standard for selection of Li Bai poetry such as "Pungsogwebum(PSWB: 風騷軌範)", "PSWB" accepted the classification method of "CAPL" in a limited way, to reclassify Li Bai's works in a new way.

Fourth, through and "Osanseollim (五山說林)" and"Jibongliuseol (芝峯類說)" , it was confirmed that CAPL's annotation wa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tool to understand Li Bai works until that period. What they call "original annotation" were comments of Yang Qixian (楊齊賢) or Xiao Shiyun (蕭士贇). However, Lee Soo-kwang (李睟光) and Cha

* Professor, Department of Classical Chinese, Korea Univ.

cheon-ro (車天輅) also pointed out problems of annotations and even added their own annotations. "Jibongliuseol (芝峯類說)" even suggested Tangruxun (唐汝詢)'s "Tangshijie (唐詩解)" as an alternative to "CAPL".

Keywords: Li Bai, Early Joseon, Mid-Joseon, acceptance, ",Classified and Annotated Poems of Li Taibai (分類補注李太白詩)", "Tangshijie (唐詩解)".

접수일: 2021.09.30. || 심사일: 2021.10.08. || 게재확정일: 2021.11.15.